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4호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광주 종교시설 중 8%만 사찰
전남지역 불교 민낯 확인하다

조계종 포교원 '광주전남 포교지도' 살펴보니

조계종이 추진 중인 전국 포교지도 완정의 시작, 광주전남 포교지도가 공개됐다. 약화된 호남지역의 교세 실상은 심각했다. 광주지역 종교시설 중 사찰은 8.7%에 불과했으며, 젊은 층이 분포한 지역에는 사찰 부족해 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2일 광주 자비신행회 나눔센터에서 '광주전남불교지도자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포교원의 '붓다로살자' 신행혁신 운동의 첫 대중공사로 열린 이날 자리에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진행 중인 '포교지도'가 최초로 공개됐다. '포교지도'는 전국 권역별 인구와 사찰 및 신도 현황 등을 통계자료로 표시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광주전남 포교지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2208개 종교시설 중 사찰은 194개로 8.7%에 불과했다. 교회와 성당을 합한 기독교에 비해서는 19%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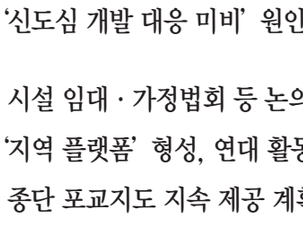
불자 수 또한 이웃종교에 비해 열세로 광주지역 불자(13만 9000여명)는 광주 인구의 9.4%, 광주 종교인구의 24%에 불과했다. 개신교 신자에 대비해 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먼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찰이 부족했다. 인구가 많은 가장 많은 북구(44만 6316명)는 전체 종교시설 753곳 중 사찰이 45곳으로 6%에 불과했다. 이 지역 교회가 339개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9만 8784명)에는 65곳의 사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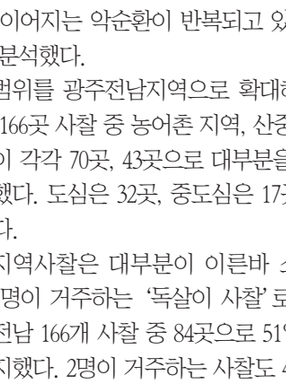
이번 포교지도에서는 사찰이 고령화 지역에 밀집돼 있는 문제도 나타났다. 앞서 사찰이 많은 동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고령화 지역이다. 이에 반해 15세 미만 인구가 20%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이 8%로 가장 낮은 광산구의 경우 사찰은 27곳에 불과했다. 이 지역 교회 175곳의 15% 수준이었다.

김병주 포교원 전법팀장은 "신도심 개발에 불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열악한 재정으로 도심포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이 문제가 다시 신규 신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표1〉 광주 지역 종교시설대비 사찰 수



〈표2〉 광주 인구대비 불자 수



광주 지역 불자 인구 9% 불과
2천여 종교시설 중 사찰 194곳
사찰 분포도 인구 대비 불균형
'신도심 개발 대응 미비' 원인

시설 임대 · 가정법회 등 논의돼
'지역 플랫폼' 형성, 연대 활동
종단 포교지도 지속 제공 계획

범위를 광주전남지역으로 확대해보면 166곳 사찰 중 농어촌 지역, 산중 사찰이 각각 70곳, 4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심은 32곳, 중도심은 17곳이었다.

지역사찰은 대부분이 이른바 스님 한 명이 거주하는 '독살이 사찰'로 광주전남 166개 사찰 중 84곳으로 51%를 차지했다. 2명이 거주하는 사찰도 40개로 24%였다. 사실상 포교와 전법의 역량 발휘가 힘든 구조였다.

스님들이 전법 포교에 나선다고 하여도, 담당하는 범위가 너무나 넓은 상황이다. 인구 대비 스님의 수를 나누면 동구 지역은 스님 1인당 3187명이었지만 광산구 지역은 1인당 4만 4528명, 서구 지역은 1인당 무려 10만명이 넘게 담당해야 했다. 전법 지도법사도 전국 484명 중 광주지역은 단 1명이었다.

포교, 전법, 교육, 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역직 스님들은 광주시는 평균 2명, 전남 지역은 평균 1.7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 곳이 동구 2곳을 비롯해 총 사찰 4곳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청소년 법회도 1곳, 청년 법회도 2곳 뿐이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공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해 60여 광주전남 불교지도자들은 5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인구 대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찰 외 종교활동 공간을 지역불교계가 힘을 모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 불교지도자들은 북구와 광산구 신행 및 수행 공간 마련을 위해 시설을 임대하고, 가정집에서 지역법회를 여는 등 실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정지역에 몰린 사찰들이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을 극복하고, 사찰이 부족한 지역의 전법 포교활동을 위해 본말사를 떠나 행정구역 기준으로 '지역플랫폼'을 형성해 연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포교당을 개설하거나 하는 방안이 급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사찰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중공사에서의 포교지도 공개를 시작으로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말까지 전국 포교지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10월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의성 등지에서 열리는 대중공사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포교연구실은 1차 통계 자료를 취합한 상태로 2차 정리 중이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하모니" 2018평창올림픽이 1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의 문화공연을 펼쳤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9월 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축하 국민화합대회'를 열고, 수백여 명이 참여한 연합합창단의 '보현행원송' 공연을 대중에게 선사했다. 불교계는 이 자리서 공동협약문을 발표하고, 전국 주요사찰의 성공기원 '등 달기'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3국 불교, 정토세상 · 세계평화에 진력"

제20차 한중일불교교류회의
한국대회 9월 6~8일 거행

세계평화 기원법회서
전쟁 없는 세상 발원



한중일 3국 불교계의 황금유대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3국 불교지도자들은 정토세상 구현과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쉐청),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회장 이토 유이신)는 9월 6~8일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3국 불교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년간 함께해온 황금유대 관계를 재확인했다.

3국 불교계는 9월 7일 코엑스 호텔서 20번째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세계불교 중흥에 기여 △수행과 실천으로 정토세상 구현 △3국 우의와 연대로 세계평화 기여에 나설 것을 밝혔다.〈사진〉 특히 2018평창올림픽과 2020도쿄올림픽 2022베이징올림픽 등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는 부처님전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각국의 불교의식을 봉행하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마음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인류의 평온과 세계평화를 위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에 해답이 있다"며 "많은 지성은 문화적 가치를 통한 인류애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불교사상이 담고 있는 문화와 정신 회복을 위해 한중일 교류대회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회향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어 최근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태를 언급한 뒤 "3국 불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내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 평화를 위한 길은 서로를 적대하고 위협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불교계는 이외에도 대회기간 동안 2018평창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와 보현행원송 공연, 학술강연회, 축하만찬 등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10월 12일 공고

후보자 등록 9월 18~20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0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6일 후보자 자격과 등록기간, 등록서류 등의 내용을 담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총무원장 후보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다. 아울러 △중앙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 △종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등 경력을 갖춰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18~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서 선출한 10인이 선거인단으로 등록된다. (02)2011-1865 윤호섭 기자



‘갈등 해소’ 위한 종회소집 요구

무차회, 토론회 이어 종회소집 요구서 제출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차회 대표 정산 스님〈사진〉이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중앙종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산 스님은 9월 6일 서울 인사동의 한 카페서 열린 무차회 제2차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종단개혁 이후 현재의 선거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건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종도 모두 집중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실수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종도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종단 분란의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여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명선거 종회 결의 강조

“선출직 종무원 참회하라”

그러면서 △선거 전 임시종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정한 종헌종법 집행 △무소임 스님 경제적 지원 △승려 종무행정가 양성 △재가불자 교육체계 구축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산 스님은 이어 “6차 촛불법회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불자고 도반이었다. 뉴스에서 폭력적이고 이교도들이 많은 것처럼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종회의원으로서 부족함에 대해 참회했다. 욕먹을 줄 알았는데 되레 박수를 받았다. 왜 더 빨리 참여하지 못했을까 반성했다”고 촛불법회 참가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또 “대중이 이해해준 덕분에 참회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만 조금 바꾸면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느꼈다”면서 “종헌종법을 통해 선출된 교역직 종무원이라면 모두 그 자리(촛불법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차회는 7일 종단 내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의의 장을 마련하는 중앙종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8년, 성역 없이 말하고 듣자”

종단현안 대화추진위, ‘대화의 場’ 제안

총무원 · 연석회의 · 시민연대에 참석 요청

마곡사 금권선거 논란, 용주사 주지 은처자 의혹, 적광사미 폭행사건 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불교시민사회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백년대계본부가 성역 없는 대화의 장 마련에 나섰다.

백년대계본부 산하 종단현안 대화추진위원회(상임대표 도법)는 9월 6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종단개혁연석회의 ·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에 “진실한 대화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대화추진위는 지난 8월 열린 대중공사서 위원들이 종단 현안과 관련된 대화의 장 마련을 요구하며 구성됐다.

이날 대화추진위는 “삼계화택의 불을 꺼야할 조계종단 공동체가 오랜 세월 스스로 쌓아온 폐단의 불길에 휩싸였다.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정의 · 개혁 · 청산이라는 명분의 불로, 총무원은 제도 · 화합 · 안정이라는 명분의 불로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웃종교인과 시민사회까지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임을 먼저 겸허히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대화추진위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내고 지혜를 모으는 대화가 절실한 때다. 어떤 금기나 조건도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부디 함께 하시길 간곡히 청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조계종단의 지난 8년을 성역 없이 말하고 들음으로써 진실을 확인하자.

양측 입장 각각 전해 듣고

제한 없는 토론 가능토록

이르면 9월 25일 내 마련

“정치적인 해석 않길 부탁”

양쪽 각자의 명분에 안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중공의의 광장으로 나와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화추진위는 양측에 제안문을 전달하고, 이달 중순 각 입장을 경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9월 25일 안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현안을 풀어갈 방침이다. 특히 현안 검토 후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면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도법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종단현안 대화추진위원회가 9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집행부와 종단개혁 연석회의,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에 대화를 요청했다.

도법 스님은 “종단에는 대중의 뜻을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진지하게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화추진위 활동을 정치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혁과 화합이라는 두 가치 중 무엇 하나 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화추진위가 제3자로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다른 단체가 한다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종단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바깥 단체도 마찬가지”라며 “그나마 종단서 어느 정도 벗어난 백년대계본부가 맡아야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명진 스님 등 현안 당사자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힌 도법 스님은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이 불거졌을 때 찬반을 주장한 모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뤘다. 격론 끝에 정리한 결과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멍석을 깔고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화추진위에는 혜총 · 도법 · 흥선 · 덕문 · 목종 · 은산 · 범수 · 희봉(이상 비구) · 정관 · 무구 · 심원 · 지현(이상 비구니) 스님, 재가불자 김성권 · 유지원 · 유정길 · 정웅기 · 김왕근 · 김용숙 · 김점란 · 신호승 · 이향민 · 조형일 · 최영기 등 23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전법사 제도 마련된다

관련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종단 전법 ·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법사 제도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전법사는 승가대학 과정에서 4년 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해 전법 · 포교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제정안은 전법사 제도의 역할과 지원 자격, 선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교육과정에서 3.0이상의 평점을 받고, 사찰 수련회나 템플스테이 등에서 전법활동이 있는 학인에 한해 2급 전법사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서류전형과 4급승가고시, 교육위원회 심의 후 2급 전법사를 선발한다.

1급 전법사에는 2급 전법사로 위촉된 스님 중 3급 승가고시 응시자에 한해 선발 자격이 주어진다.

전법포교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1, 2급 전법사에게는 장학승 선발 및 종단연수교육에 대한 특전도 부여된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15회 대원상 공모

9월 29일까지, 포교·콘텐츠 부문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이 제15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기간은 9월 29일까지며, 공모 부문은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이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 재가부문에 대해 불교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3인(곳)을 선정한다.

또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미디어 영상포교 자원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의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분야 및 오디오 · 영상콘텐츠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집착 말라’ 는 가르침 상기합니다

⑨ 〈무소유〉를 소유하려는 세상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 나는 나름대로 근신하는 기간을 보냈다.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허허롭기 그지없었다.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자책 때문이었다. 편지라도 자주 할 걸 후회도 들었다. 스님의 숨결이 묻은 흔적들을 살펴보니 꽤 됐다. 인도나 미국에 가시어 보낸 엽서, 간디 기념관에서 사 오신 원숭이상, 강원도 오두막에 사시면서 ‘천식 때문에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가장 애틋한 물건은 스님께서 겨울내의를 보내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드린 일이다. 아마도 스님께서는 내의를 여러 벌 선물 받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셨을 것이다. 스님은 무엇이든 하나만 소유하셨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군더더기라고 했다.

“원고를 쓰기 때문인지 만년필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누가 선물해서 만년필이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되다 보니 한 개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살뜰함과 고마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선물한 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만년필 한 개를 다른 이에게 주어버렸지요.”

최소한의 것만 소유함으로써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홀가분해지자는 것이 ‘무소유’의 요지였다. 그런데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자, 스님의 〈무소유〉는 경매에 나와 놀랄 만한 액수로 거래됐다. 창원에 사는 사촌동생도 〈무소유〉를 구할 수 없겠냐고 내게 전화를 했다. 내가 법정 스님 제자이니 〈무소유〉 책을 몇 권쯤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 권도 없었다. 〈무소유〉는 〈영혼의 모음〉이란 책에서 가려 뽑아 편집한 책이었다. 나에게는 〈영혼의 모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소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무소유〉를 갖고자 하는 소유의 광풍은 이제 잦아진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씁쓸하다.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긴 〈무소유〉가 소유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왜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가지고 싶어 하는 것과 읽고 싶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한 심리상태는 무엇일까. 스님은 현대인들의 소유지향적인 마음이 〈무소유〉에서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일러스트 · 정윤경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소유’를 강요하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소유〉란 책을 낼 때는 ‘무소유’란 개념이 없었지요. 또 ‘무소유’를 정신적인 가치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책 제목을 지을 때 출판사 사장이 난색을 표했는데 내가 우겨서 정한 제목이에요.”

스님은 또 ‘베푼다’는 말보다는 ‘나눈다’라는 말을 즐겨 쓰셨다. 베푼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는 행위이고, 나눈다는 것은 잠시 맡아 지닌 것을 되돌려주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말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베풂은 상하관계이고, 나눔은 수평관계이다. 그리고 돌려준다는 것은 상하나 수평이 아닌 인연을 따르는 수연행(髓緣行)이다. 우주적 관계라고나 할까.

선 계 문

대한불교원효종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종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종단은 종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권을 어지럽히는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종정으로서 본인은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종령으로서 선계**합니다.

1. 대한불교원효종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은 종정이며, 본인은 이미 **서울고등법원 2015비합10** 종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의 결정에서 인정된 종정이고,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08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은 단지 종단의 대표자가 아닌 임시종정과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므로 임시종정과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을 대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동윤은 종단의 대표자가 아님니다.

2. 직무대행자를 종단의 대표자로 오인하여 직무대행자에게 동조하는 일부 종도들이 있으나, **종단의 대표자는 종정**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종단의 분열에 동조하지 말고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며 불도수행에 정진하기를 바람니다.

3. 원효종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이니 모든 종도는 종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 및 피선거인 등록을** 2017. 9. 30.까지 하여야 한다.

4. 위 기간내에 선거인 및 피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는 종도는 종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향후 종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관여를 배재**한다.

5.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은 직무대행자가 하고, 교구원장 및 중앙선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보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6. 종단의 기강을 바로잡고 불순한 소수의 무리를 종단에서 영구 척결하기 위하여 종정의 직무지휘를 따르지 않는 종도는 엄히 징계할 것이니 모든 종도들은 종권을 확립하고 종단의 기강이 바로 설 때까지 자숙하고 각자의 수행에 정진하면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불기 2561년 9월 8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종회의원 선거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법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추어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 합니다

▶ **종회법 제6조에 의거하여 각 교구 선거위원회 구성**
일 시 : 2017년 10월 10일 (화) ~ 2017년 10월 20일 (금)
장 소 : 각 교구 종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종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월) ~ 2017년 10월 31일 (화)
장 소 : 각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종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의거하여 종회의원 전형**
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장 소 : 총무원 회의실(중앙선거관리위원이 심사 후 적부 판정)

▶ **종회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확정 공고**
일 시 : 2017년 11월 9일 (목)
장 소 : 총무원 게시판

불기 2561년 9월 8일

선거관리위원장 석 불

■ 총무원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전화 (054)743-0700
문의 및 판결문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원으로 연락바랍니다.

韓中日 불교 '황금유대'는 계속된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20년 성과와 과제

1993년 中 조박초 거사 제안
1995년 첫 대회… '북경선언'
한중일 삼국불교 교류 견인
상징성 실천으로 이어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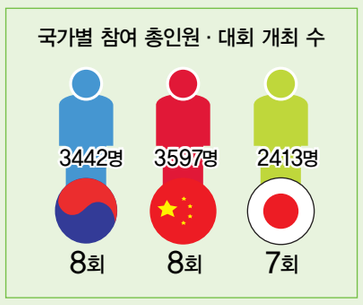
'황금유대(黃金紐帶).' 20여 년을 이어온 한중일 3국 불교 교류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1993년 10월 당시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의 황금유대에 의한 3국 불교도의 정기적인 교류를 위한 상설회의 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한 · 중 · 일 불교가 합의하며 본격적인 3국 불교 교류가 시작됐다.

1995년 5월 21~24일 중국 북경 광제사 일원에서 역사적인 1회 대회가 '우호 · 협력 ·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인정한 종교행사였다. 이는 혁명 원로로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까지 올랐던 실력자 조박초 회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회 대회에서는 북경선언이 채택됐다. 3국 불교계는 선언을 통해 △인재양성 △문화 · 학술 교류 △정보 교환 △상호 참관 방문 △세계불교도들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불교도들이 도덕향상, 환경보호, 생태균형, 자선구제, 전쟁 반대 등의 활동에 관심을 돌리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호소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1996년 9월 서울대회, 1997년 10월 나라-교토 대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종교를 통한 3국의 우호협력 분위기도 고조됐지만, 1998 · 1999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조계종이 내홍을 겪게 되며 대회 개최가 어려웠다. 대신 이 기간 동안은 '한중일 불교교류위원회'를 열어 3국간의 교류 실무를 담당할 조직 강화에 힘을 쏟았다. 조직 정비 이후 열린 2000년 10월 서울서 열린 대회에서는 '신세기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열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였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오랜 역사를 같이한 3국의 불교가 상호 동질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이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3국 불교계의 상호 수행법 체험단 교류에서도 잘 나타난다. 3국 불교의 수행교류는 10년에 걸친 지도자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쌓인 신뢰가 바탕이 돼 가능했다.

또 '3국 교류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 교류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무엇보다 '세계평화 기원법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나라가 자비와 평화라는 불교적 사명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는 대회로 정착돼가고 있다.

매회 세계의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대회를 열어 공동 합의 선언을 채택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중일 대회 안에서는 이젠 완전히 정례화 됐다. 하지만 선언문이나 제언들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9월 7일 20차 대회 국제학술강연회에서 박영환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발표한 제안들은 귀 기울만 하다.

박 교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협력에 대한 제안'을 통해 3국 불교가 주도한 △동아시아 인문 포럼 개최 △청소년 불교문화 캠프 및 대학원생 불교논단 개최 △동아시아 불교공헌상 및 동아시아 불교학술상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활동은 한중일 불교의 학술적인 이미지 확립과 세계 속의 동아시아 불교의 확장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 내부 개혁, 학술성과 대중성, 공공성 확보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파견할 조계종긴급구호단 출정식을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네팔 홍수 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 급파

9월 7일 출정식… 묘장 스님 외 5명 구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파견할 조계종긴급구호단 출정식을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부처님 탄생지이기도 한 네팔은 현재 우기 중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프타리, 라우타핫, 마호타리, 시라하, 바리다, 선사리, 반케, 치트완, 모랑, 설라히, 카일라리, 자파 등 19개 구에서 45만5,0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은 현지 NGO 단체인 Ecological Protection Forum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단 파견 및 구호물품 지원을 결정했다.

긴급구호단은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떠라이 지역 라우타하트 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가옥 관파 피해가 많아 임시 거주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긴급구호단은 텐트와 담요, 모기장 등의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추가지원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구호 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실시하는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약 5만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다.

긴급구호단장 묘장 스님은 "홍수가 발생한 한 달 전만해도 빨리 수습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폭우로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지역이 매우 광범위해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면서 "수재민들이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도반HC, 자회사 '도반여행' 설립

(주)대승투어 합작
"불교계 관광사업 활성화"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가 행사기획대행업에 이어 관광사업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한다.

도반HC(사장 김용환)는 9월 5일 서울 견지동 두산위브 2층 사무실서 (주)도반여행 사무소 개소 및 자회사 편제식을 개최했다. 도반HC는 종단 차원의 기획여행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주)대승투어와 합작으로 나인성 대표이사를 영입, 도반여행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도반여행은 불교계 여행 및 관광사업 분야서 종단차원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특히 참신한 교계 관광업체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그간 성지순례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불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일반 관광현장에 진출해 불교적 문화의식을 홍포함으로써 교계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깨달음 향한 수행 · 전법, 종단 발전 근본"

수불 스님, 간화선硏 종책토론회서 조계종지 강조



승가, 과거 구습서 못 벗어나
사찰 · 교단 운영 재가자 맡기고
출가자, 수행 본분사 충실해야

"조계종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 종단이 앞으로 살아나려면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전법이 근본이 돼야 합니다."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이 현 종단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행과 전법이라는 근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은 9월 7일 한국간화선연구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조계종 수행과 전법의 과제' 종책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불 스님은 불자인구 300만 명 이탈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종단 대중 안에 문제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국불교계는 일부 지도자의 비행과 편가르기로 불교계 전체가 욕먹고 있다. 시대 중생을 계도해야 할 승가가 오히려 세속인들로부터 지탄과 걱정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주요 소임자들이 수행과 전법의 본분은 시늉만 하고 이해관계와 세속적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전법이 되고 종단과 스님들이 존경과 신뢰를 받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언제까지 기도불공, 천도의식, 문화재관람료로 종단을 유지할 것인지를 지적했다.

70년 전 봉암사 결사 당시 선각자 스님들이 주창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 정신을 강조한 수불 스님은 교단이 바로서기 위해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찰이나 교단 운영은 과감히 재가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승가는 수행과 전법의 본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조계종이 전승해 온 직지인심 전법도생의 종지와 수행법이 옳은 방향이고 길"이라며 "소납은 이 길이 종단이 사는 길이고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인류에게 기여하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책토론회에서는 한국간화선연구소장 미산 스님이 '인공지능시대와 수행 종책에 대해'를,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전법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미산 스님은 종단 차원의 수행 전문연구소 설립 · 운영을 비롯해 수행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 · 관리할 법령 마련, 종단 차원 수행 전문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백 교수 역시 조계종 전법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전법 프로그램 마련 △수행 전법 자료공유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사회적 봉사활동 강화 △전법교육 혁신 등을 내놨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운 스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 등의 토론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청 내년 예산 7746억원 책정

가야사 복원 22억원 편성… 전년대비 1.8% 감소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내년 예산이 774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7891억 원보다 1.8% 감소한 것이다.

예산은 6669억 원에서 6624억 원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은 1222억 원에서 1122억 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올해 0.2%서 0.18%로 떨어졌다.

문화재청은 내년도 예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전승 · 유지 · 보수 지원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3373억 원) △4대궁 · 종묘 · 조선왕릉 · 세계유산 등 핵심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확대(758억원) △문화재 돌봄사업과 방재시스템 등 맞춤형 사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407억원) △지역 문화유산 명품브랜드 육성과 고품격 · 맞춤형 문화유산 활용 · 진흥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확대(372억원) 등 4개 부문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또 영 · 호남 가야문화권 유적 고증과 실체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 확충, 발굴과 정비 등에 22억 원을 배정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며 "문화재 개방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신성민 기자

포산당 혜인대종사 부도탑 · 비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실, 제주 약천사 회주이셨던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수행정신과 덕을 기리는 부도탑 · 비를 조성하여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하오니 큰스님과 인연 있으신 사부대중께서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주기를 앙망합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9월 22일(금, 음 8. 3)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은해사 부도전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 연락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운곡 돈관 분향 삼배
포산 문도대표 덕조 구배

일 주 문



몽골유치원 준공

월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스님은 8월 31일 몽골 항올구에서 분황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황혼기 나도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황혼기 나도출가학교를 진행한다. (033)339-6777



군종교구 철원 호국위령제

혜자 조계종 군종교구장 스님은 9월 8일 108산사순례기도회와 함께 철원 도피안사에서 호국위령제를 개최했다.



돌맞이 마정수기 법회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9월 24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돌맞이 마정수기 법회를 개최한다.

(02)3218-4801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한마당

심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9월 9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2017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창립 19주년 기념식

박흥우 국제포교사회장은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 · 중 · 일 장애인 예술축제

방귀희 한 · 중 · 일장애인예술축제 대회장은 9월 13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5층에서 '나를 넘어, 우리를'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

국제연꽃마을 베트남 직업훈련원 준공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은 8월 18일 베트남 광남성 땀끼시 한국형 종합복지타운 내 직업훈련원 강의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제연꽃마을 회장 원명 스님과 임원진, 윤초희 동국대 교수, 김일명 교수, 구미공과대학 김영식 전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범패 교육 자아완성 밑거름"

Interview

해동불교범음대학 학장 대은 스님



사의버강의 · 집중교육 운영

2000여 스님 · 법사 배출

"불교의식은 바로 불교생명"

"30년 가까이 불교전통의식을 교육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사이버 강의와 6개월 집중 교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접했으면 합니다."

하반기 수강생 모집에 나선 해동불교범음대학 학장 대은 스님은 "한국불교는 오랜 세월 전통의식이 발달해왔으나, 이 조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해방 후 혼란과 불교법난으로 맥이 쇠퇴해 소수의 범음 범패 스님과 일부 사찰 전통의식만이 남았다"며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을 통해 이러한 맥을 잇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님은 범음 범패 의식이 불교 수행전통과도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예로부터 불교 이상을 실현하는데는 몇 가지 문이 전해 내려온다"며 "참선을 위주로 하는 경절문, 즉 선문과 간경 위주의 교문, 밀교, 그리고 정토의 염불문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정토 염불문은 그 중 타력신앙이면서 자력신앙으로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권할만한 가르침이다. 해동불교범음대학은 염불문 가르침에 입각해 시대흐름에 맞춰 범음 범패를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동불교범음대학은 1987년 조계종 원로 이두 스님이 인간문화재 송암 스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설립했으며 1991년 대학 부설 불교의식교육원이 만들어지며 본격적인 대중교육에 나섰다. 대은 스님은 초대 교육원장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한 해동불교범음대학 역사의 산 증인이다.

해동불교범음대학은 태고종 인가 대학으로 3개월 마다 불교전통 의식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 3개월, 중급 3개월 고급(작법) 6개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 스님과 법사를 배출했다.

여기에 스님은 해동범음단을 통해 불교무용 범무 공연을 펼치고 사이버 강좌 시스템과 첨단교육 교재를 도입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타 대학에서 2년 넘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6개월 간에 압축하여 전수하고 이를 시연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님은 "지난 수세기 인류는 엄청난 과학문명을 발달 시켰지만 인간 내면 타무와 인간성 회복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였다"며 "미혹과 무명 업장으로 황폐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종교에 있어 의식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이 정확한 의식 절차에 의해 여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자칫 비종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종교의 근간인 의식절차부터 제대로 배워 여법하게 집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포교 전법, 수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전통의식 체계화 및 대중화에 업적을 남겼다고 자부한다. 많은 이들이 범음대학을 통해 불교전통의식을 이해하고, 습득해 자아완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타인에게도 공덕이 되는 선근종자를 심는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41-0495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에 관심을"

임정애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



연명의료법 2018년 전면 시행

10월 경 봉사자 교육 실시

유관기관 협력 필요성 제시

호스피스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의학적인 판정을 내린 경우 평안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와 종교인, 의사와 간호사 등이 복합적으로 접근해 물적 · 심리적으로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법)이 2018년 2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호스피스 봉사자 배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마취통증학과 교수)이 있다.

임 본부장은 10월 중순 불교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10여명의 강사진까지 구축한 상태다.

임 본부장은 "많은 불자들이 봉사는 하시지만 정작 호스피스 현장에서는 봉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확히 호스피스의 개념을 숙지하고, 불교호스피스를 펼치기 위한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생명존중운동본부는 올해 3월 창립 이후 5월 총 4회에 걸쳐 '불교사상과 호스피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호스피스 강의에서는 불교호스피스 사상을 강의하기 어려워 이뤄진 자리다.

전신인 웰다잉운동본부에서는 웰다잉 교육을 통해 6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해 50여개 어르신 돌봄기관에 파견한 바 있다.

임 본부장은 "연명의료법 전면시행으로 호스피스 교유그 강사 양성, 그리고 봉사자 교육 모두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가장 먼저 교육을 진행해 불자 저변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9월 진행 예정인 교육프로그램이 한 달여 미뤄졌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병원전법단, 종립병원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호스피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갑수 종무실장 조계종 예방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김 종무실장에게 임명 축하인사를 전한 뒤 "종단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종무실장은 "소통 역할을 하겠다. 종단이 문체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이 10월 중 공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삼광사, 부산복지 위해 나섰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9월 1일 경내 법화삼매당 앞에서 천태복지재단 부산지사 현판식을 개최했다. 삼광사는 17년간 천태종이 운영하는 천태복지재단 부산지사를 운영해왔다. 이번 현판식은 삼광사가 진행하는 자비 나눔을 시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역에 제공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다.

현판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주지 세운 스님과 부산불교복지협의회 회장 정여 스님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용인 대덕사, 기흥구에 쌀 기탁



용인 대덕사(주지 탄원)는 9월 5일 백중을 맞아 기흥구청에 쌀 1,000kg과 라면 30박스를 기탁했다. 대덕사는 이에 앞서 대덕사는 기흥구청과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쌀 300포(10kg 기준)를 기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대덕사를 방문한 장경순 기흥구청장은 신도들의 십시일반 보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탄원 스님은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패자부활전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춤을 추는 지도교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표정이 간절해 보인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대회는 참가학생 모두가 즐기는 즐거운 퀴즈대회로 진행됐다.

"나란다대회, 진정한 우승자는 '너'란다"

역대 최다 참여 제9회 나란다축제 성료

골든벨 대회 322명 참여
방식 변경에 열기 고조
초반 탈락 막고, 재도전 기회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돼"

"우승자는 결정됐지만, 여러분 모두가 우승자입니다. 함께 불교교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범종을 울린 주인공이에요."

9월 2일 동국대에서 펼쳐진 제9회 나란다축제는 불교계 3대 축제로 불릴 만큼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그 백미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였다. 초반 탈락을 막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열기를 유지하기 위해 방식이 변경된 초등부 결선은 다른 어느 때 보다 더 왁자지껄, 높은 열기 속에 치뤄졌다. 역대 최다인 322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응원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개월 간 사찰에서 공부를 했고 OX퀴즈로 바뀌었지만 1번 문제부터 통과는 쉽지는 않았다. '대웅전에서는 3번 절하고, 관음전에서는 2번 절한다' 는 첫 문제서 30여 명이 탈락했다.

첫 문제서 탈락한 박성려 학생(초3)은 "공부 많이 하고 문제를 열심히 외웠는데 1번 문제부터 헷갈렸다. 떨어져서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의 고비는 이어졌다. OX퀴즈 마지막으로 나온 5번 문제의 '석가모니불의 석가는 깨달으신 분이란 뜻' 이란 질문에 참가자의 절반 가량이 O를, 나머지가 X를 표시한 것이다.

급하게 사회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에게 힌트를 요청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양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였다.

O를 적어들었던 아이들은 스님의 힌트에 급히 X로 답을 고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꿋꿋이 O를 지우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O를 유지해 탈락한 진관사 이준승 학생(초3)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O를 썼다. 스님이 X라고 알려주셨지만 컨닝해서 맞추는 것보다 답을 유지하는게 맞아보였다"고 소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대회 중반 패자부활전이 예고돼 있었기에 빠르게 탈락한 아이들도 자리를 뜨지 않고 무대를 주시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똥말똥 눈을 뜨고 집중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사회자는 지도교사들을 무대로 불러 10초간 33배 빨리하기, 댄스 배틀 등을 진행했다. 평소 불교교리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우스꽝스러운 춤에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10초간 33배를 열심히 해 아이들을 2명 다음라운드로 진출시킨 김남수 강릉파라미타 간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 문제를 실수로 틀려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구룡사 5학년 고권 학생은 "선생님이 춤을 춰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 꼭 대상 200만원을 받아 우리 구룡사 친구들 모두 해외여행 보내주고 싶다. 대상을 못타도 같이 참여한 아이들과 동생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범종을 울려라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바뀐 규칙에 따라 최종라운드 20여 명이 남았다. 결선점수 합산제도의 도입으로 아이들은 문제를 틀려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날 대회 1등은 손성원 학생이, 2등 신강민, 3등 정일승, 4등 노승현, 5등 안희준, 6등 최재영 등이 뽑혔다. 하지만 등수와 별개로 모든 아이들이 이날 대회의 우승자였다.

구룡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인우 스님은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을 싫어했지만 간식시간을 갖는 등 흥미를 잃지 않게했다.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하고 미안했는데 열심히 즐겁게 풀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종교 떠나 소풍 삼아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절이 재미있는 곳이다' 는 생각을 갖고 친구도 많이 데려올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구례 화엄사에서 온 어린이법회 어머니회 회장 김미란 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었다. 4시간 걸려 서울에 왔지만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다. 앞으로 불교계에 이런 축제가 많아져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나란다축제에서는 인터넷 생중계로 '독송대회' 가 진행되고 20여개 체험부스가 동국대 곳곳에 마련됐다. 특히 사찰을 VR로 체험하는 부스를 비롯해 상담부스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 진행을 도운 이들에게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윤남희 안내도우미는 "평소에도 절에서 어린이 지도교사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축제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나도 일반 참가자로 나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도우미를 자청했다"며 "참여한 사람이 많아서 왁자지껄하고, 같은 불자로서 에너지를 받는다. 불교는 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나란다 축제처럼 앞으로도 일반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박진형 수습 기자


나란다축제 도전 범종을 울려라 OX퀴즈를 맞춘 참가 학생이 정답이 공개되자 환호하고 있다.


불교문화 홍보 부스를 둘러보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제9회 나란다축제 우리말독송대회 모습.



“공무 중에도 ‘국민행복’ 화두 놓지 말길”

공불련, 종정 진제 스님 법사로 첫 참선법회

42개 기관, 250여 명 참여
9월 2~3일 동화사 철야정진
진제 스님 “생활 화두 지속”


자정 무렵 동화사 통일대불보전에서는 참선 법회가 열렸다. 참선 법회에는 전국 공무원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위원)가 창립 최초로 전국 공무원들이 참여한 참선법회를 개최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사로 나섰으며, 42개 기관 불자회 회원 및 가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가을 날씨로 바뀌어 가는 9월 2일 동화사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통일대불전에 모여 이틀간의 일정을 입재법회로 시작했다.

입재법회서 김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선수행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좋은 방편”이라며 “수행은 오감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즉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참선수행을 공무원 불자들이 평소에도 해나가자. 항상 국민행복을 화두로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해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시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송도근 공불련 고문(사천시장), 김성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해 첫 참선법회를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은 “지혜는 참선을 해야 마음의 광명이 밝아서 모든 사리판단이 정확하고 어디 갖다놔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 법”이라며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재법회 이후 통일대불전에서는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국악과 가요, 창 등 문화공연에서 박근미(김해시청불자회/오카리나 연주), 황민구(부산광역시 서구/팬플룻연주), 김인숙(우정사업본부/창) 회원이 재능기부로 솜씨를 발휘했다.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예불까지는 동화사 선원 스님 지도하에 철야참선수행이 이어졌다.

3일 회향법회에서 250여 공무원 불자들은 “우리 공무원불자들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겠다. 불퇴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고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 참여한 한 공무원 불자는 “평소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 불자들과 함께 정진해 의미가 더욱 깊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불련은 10월 28일 합천 해인사에서 창립 17주년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불련은 매주 셋째주 금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공무원 불자들의 신심 증장에 앞장서고 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즐겁게 사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이들이 마음 편히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체인력 서비스’ 종사자 보호 절실”

불국토, 인력지원센터 개소 10주년 세미나 개최

서비스 복지 실태 공유
인권 · 전문성 강화 제시



대체인력 서비스는 임신과 육아 그리고 병가 등으로 생기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정작 이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와 복지는 열악하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범산)가 2007년 전국 최초 ‘대체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9월 1일 부산시청에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대체인력 종사자들이 참여해 10년 간의 센터 성과를 돌아보며 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미경 부산사회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소장은 “부산은 전국 최하위 출산율, 그리고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의 문제에 처해있다. 때문에 대체인력사업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센터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대체인력서비스는 여성 일자리 복귀와 안정적인 출산에 도움을 줘 매년 파견근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사 중 여성이 90%로 육아 및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면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취약 계층으로 전락한다”며 사회복지 계열의 대체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급여가 낮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 시비로 운영되지만 대체인력사업 지속성과 안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과 중앙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체근무자들은 조직의 소모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 인권보호 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혜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과장은 “파견근무자들의 경우 전문성이 낮아 기존 종사자의 업무를 감당하기엔 부족함이 있다”며 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은 “부산시의 고용율 향상과 실업률 저하라는 희망을 담아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는 2007년 5월 취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지원 사업’과 2008년 5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복지우수프로그램으로 각각 선정됐다.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는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변화를 이끈 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성미 기자

충청 지역 신행중심될 마곡사 불교회관 개관

9월 2일 공주시 신관동… 총 3개층 규모



충청지역 포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마곡사 불교회관이 건립됐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9월 2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불교회관 삼존불 점안식과 현판식을 봉행했다. 불교회관은 1500㎡ 대지에 연면적 933㎡으로 총 3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에는 사무실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시설이 들어서며 3층에는 법당이 자리한다.

마곡사 불교회관에서는 신행 포교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가 등 문화강좌, 화요일에는 불교강좌, 금요일에는 마음치유명상강좌도 열린다. 공주불자연합회가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합동법회도 열 계획이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회관을 찾는 불자들을 위한 불교와 인문학강좌 및 명상강좌, 어린이 불교 교실 등을 실시하고, 충청지역 신행과 포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철웅 스님은 법어에서 “올바른 불자의 자세는 불법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개관한 불교회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

“법정 스님 무소유정신, 어린이들에게”

맑고향기롭게, 제1회 무소유어린이 글짓기 대회 24일 개최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일)가 길상사서 첫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9월 24일 오후 1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알리고, 가치관 형성에서 불자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주제는 당일 공개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까지 모집한다. 작품심사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진행된다.

수상자는 10월 18일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월 29일 길상사 경내에서 진행된다.

글짓기 대회 당일에는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불교 그림 스크래치, 비누 만들기, 단주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맑고향기롭게 에코백에 간식과 기념품도 제공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장 및 상품권, 법정 스님의 동화책 ‘아름다운 무소유’를 수여한다. 수상작은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 길상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사장 덕일 스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어린 아이들에게 까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41-4696 노덕현 기자

미래사회 동량 키울 인성교육 고찰

조계종 포교원, 9월 16일 국회서 세미나

불교계 인성교육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짚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불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적합한 인성프로그램의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박범석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박사의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가치와 성과’를 시작으로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의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 개념’,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의 ‘국가의 인성교육 정책방향과 불교인성교육의 상호 관계’ 등이 발표된다.

더불어 각 전문가들이 인성프로그램 개발 시 불교 인성교육의 기준을 제시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음의 안정과 심성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를 고민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흐르는 강물에서 시간을 바라본다

秋日隨想
② 시간의 강가에서



해질녘 적막한 강가에 나와 선다. 유장(流長)하게 흐르는 저 금빛 물살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간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잔잔한 물살위에 흐르는 시간, 물 수(氵)와 갈 거(去)를 합하면 법(法)자가 된다. 법(法)이란 진리, 물이 흘러가는 '흐름'이 진리가 아닐까. 돌이킬 수 없는 그 흐름의 원형은 시간일 터이다.

내 남루한 시간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젊은 날 나는 발길이 막힐 때면 남몰래 강가를 찾곤 했다. 유유히 흐르는 물살에 한참 눈을 주다보면 먼 데로 사라지고 마는 자잘한 근심 따위. 텅 빈 마음이 되곤 했다. 강물은 그때 내게 많은 걸 들려주었다.

"위험하게 살아라. 전쟁의 상태에서 살아라. 운명을 사랑하라." —〈오디세이아〉中

그리스의 작가 카잔차키스(1883~1957)는 과외선생처럼 일러주었다. 그의 소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고국 이타카로 돌아오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이다. 나 또한 그들처럼 풍랑과 맞서 몸으로 견딘 세월이 얼마인가. 그러나 월계관 없는 고된 시간들이었다. 이제 귀향의 닻을 내려야 할 지점에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본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

"가는 자 이와 같은가"라고 했다는 공자의 나지막한 탄성이 울려온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시간의 의미를 뒤좇게 된다. 참으로 많은 작가와 철학자들이 시간을 규명한 바 있다.

'시간은 지속적'이라고 말한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1959~1941)은 시간이란 다양한 연속성 안에서 과거에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흐르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속체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자체"라고 했던 말을 나는 다시 주목하게 된다.

'베르그송 철학을 내면화한 최초의 예술가'라 칭해진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는 자신의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시간을 기억으로 환원한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물질을 따로 떼어 냈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시간을 기억으로 환원하는 것이 문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가시적 시간을 실제적 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로 형상화할 때 그 시간은 존재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광맥을 캐는 광부'라고 자칭했던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문학의 주제도 '인간의 정체성'과 '시간'이었다. 그는 에세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반론'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시간은 지속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되는 것이며 우리들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의식은 끊임없이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지속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또한 강처럼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나도 시간을 바라본다.

"시간은 나를 이루고 있는 본질이다. 시간은 강물이어서 나를 휩쓸어가지만 내가 곧 강이다."

보르헤스의 말을 곱씹어 본다. 내 눈앞에서 자맥질을 하던 보르헤스가 불쑥 솟아올라 포효하듯 내게 외친다. "내가 곧 강이다."

내가 왜 강인가? 곰곰이 생각한다. 저 강폭을 키워가는 강물이 때론 나를 휩쓸어가지만 내가 곧 강인 것은 내가 태어난 시간과 함께 저들도 태어났기 때문이며 내가 죽으면 저들도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간과 강물은 나와 함께 태어났고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이것을 철학자 다니엘 폰 체프코는 "시간은 나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백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시간이란 무엇이냐'에 대해 "시간이란 과거 · 현재 · 미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간은 바로 지금 존재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독일의 철학자 니체나 하이데거도 이 시간의 현존성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헤르만 헤세는 〈싯다르타〉에서 이런 명구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 시간의 없음을 여실히 볼 때
> 시간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는
> 自我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시간, 자아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이 물은 흘러 영원히 흐르고 있으나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항상 그곳에 있어 어느 때와 같은 물이면서도 또한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라는 것을."

강가에 나와 나 또한 얼마나 이 말을 되뇌었던가. 그는 영원에서 순간을 본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미래에 살 수도 없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현재뿐이다.

독일작가 토마스 만(1875~1955)은 그의 소설 〈마의 산〉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오늘을 즐겨라. 시간이란 이용하도록 인간에게 빌려준 신의 선물이다."

허용된 시간은 현재뿐임을 나 또한 숙지한다. 눈을 감는다. 그러나 발원지를 알 수 없는 내 시간의 출발점, 그 아득한 영겁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물길을 더듬어본다, 137억년 전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형성된 그때 시간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불덩어리 같은 지구표면이 굳어 생명이 출현하게 된 것은 39억년 전 일이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별들의 기원과 진화에서 그 뿌리를 찾는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1934~1996)을 따라 시공을 뛰어넘어 우주를 선회하다가 눈을 뜨니 '무량원겁(無量遠劫)이 즉일념(卽一念)' 무량한 시간도 한 생각, 법(흐름)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보르헤스의 말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되는 것이다. 우주도 시간과 함께 태어났다. 모든 존재는 생멸(生滅)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고 또한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생멸한다. 존재와 시간은 서로 인대(因待)한다. 만약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보르헤스가 그의 에세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반론'에서 시간을 부정했던 것처럼, 1700여년 전, 인도의 학승 나가르주나(Nāgārjuna, 150~250)도 자신의 저서 〈중론(中論)〉에서 다음과 같이 시간의 공성(空性)을 제기한 바 있다.

"존재로 말미암아 시간이 만일 있다면/ 존재를 떠나서 시간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떠한 존재도(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시간이 있을 것인가. (因物故有時 離物何有時 物尙無所有 何況當有時)"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시간의 없음을 여실히 보게 될 때, 단지 시간의 없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해간다고 하는 생각하는 자아(自我)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과 자아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허구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말이 생각난다. 아인슈타인은 또 어떠했는가. "시간은 시계로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새로운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은 환상일 뿐이다."

시간은 왜 환상인가? 시간이 인대(因待)한 존재 자체가 자성(自性)이 없는 환(幻)이기 때문이다. 일어난 것은 전부 연기(緣起)로 일어났고 본성으로 볼 때는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다. 물이 흘러가듯 법성(法性)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이 일어나도 본성(本性)에서는 일어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아일랜드의 작가 사뮈엘 베케트(1900~1989)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았던 것이다.

"시간이 머무는 것도 없고, 시간이 가는 것도 없다. 시간이 없는데 어찌 시간의 모습을 설명하겠는가"라던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가고 오는 것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

" '이미 간 것'에는 감(去)이 없다./ '아직 안 간 것'에도 감(去)이 없다./ 과거 미래 이 두 경우를 떠나/ '가고 있는 현재'도 감이 없다. (已去無有去 來去亦無去 離已去未去 去時亦無去)"

이와 같이 감이 없다면 가고 있는 현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감 때문에 가는 자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는 자'가 자신에게 속해 있는 '감'을 사용할 수 없다. 가는 자에 앞서서 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는 자는 감이 없다. (因去知去者 不能用是去 先無有去法 故無去者去)"

이런 까닭에 간다는 것과 가는 자와 갈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환언하자면 저 물과 시간과 나는 모두 가는 곳이 없다. 실체 없는 우리의 존재는 공성(空性), 무(無)이기 때문이며, 존재를 떠난 시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질이 시간이라면 개인의 정체성이란 시간의 환영일 뿐"이라는 보르헤스의 말에 나는 그만 덜미를 잡히고 만다.

시간과 함께 인간은 하나의 마야(幻影)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자성(自省)이 나를 잠시 무력하게 하지만 그러나 도도한 흐름 위에 실린 저 무주(無住)의 시간. 없으면서 지속하는 다르마, 그 법성의 법(法)자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맹난자 / 수필가

봉 행

(사)대한불교법상종 태광사

제3회 지구촌 전쟁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 – 전쟁 없는 지구촌 평화운동

(사)대한불교 법상종 태광사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전쟁을 막는 목적으로 그동안 외면당해온 한반도의 전쟁피해자 및 애국선열 나아가 지구촌 전쟁 희생자를 추모 전쟁의 참혹함을 위령제를 통하여 전 지구촌에 알리고 전쟁을 막는 한국 불교의 호국정신을 전하고자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
● 문 의 : 033)574-2387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 월
태 광 사 주 지 석 존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公 告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공식 명칭이 변경 되었기 선포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종단은 불법승 삼보를 신행하고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증흥의 새 일꾼이 되어 새 시대 총화불교의 실천자로서 종파를 초월하고 애국 애족 하는 호국 불교에 매진하여 불타의 자비 희사 정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1982년 3월 26일 문화 공보부로 종교법인 제 1호로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제 393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17년 8월 8일 주무관청인 문화 체육관광부 제 393호로 법인 설립허가 명칭을 원융종으로 변경 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 종도 여러분은 현 사.암 등록증과 주지 임명장 등 승려증 및 유승증을 총무원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내에 재교부받지 않은 모든 문서는 본 종에서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원융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 배진호

※ 본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진흥회광고에 기재되는 임원 명단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돈황, 세계 제일 불교 미술관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⑰ 돈황 막고굴과 장경동 보물



돈황 막고굴의 전경. 석굴은 현재 492군데로 집계되고 있으나, 원래 천불동이라고 불렸듯이 더 많은 석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돈황!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이다. 세계 제일의 불교미술관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고비사막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돈황은 중심부였다. 돈황하면, 막고굴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돈황 석굴은 막고굴, 유림굴, 서천불동, 동천불동, 묘(廟)석굴 등 5군데를 말하며, 총 550여 군데의 동굴, 그리고 약 5만㎡의 벽화를 자랑하고 있다. 막고굴의 석굴은 현재 492군데로 집계되고 있으나, 원래 천불동이라고 불렸듯이 더 많은 석굴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어마마한 분량의 벽화가 있는 바, 4만5천 평방미터 정도이다. 세계제일의 벽화미술관이기도 하다. 석굴 안에 불보상 등 2,300여 조소작품이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자면, 돈황 막고굴은 고비사막에 있다하여 중국의 주변문화라고 부를 수 없다. 한마디로 돈황예술은 동에서 간 것도 아니고, 서에서 온 것도 아니다. 돈황은 중심부이다. 그만큼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바로 돈황 막고굴 예술이다.

4세기 중엽(366년) 낙준 비구가 삼위산 산책 길에 '금빛'을 보고 석굴을 뚫기 시작했다. 그래서 막고굴이 생기게 되었다는 설이다. 초기의 석굴은 대개 절벽 중간에 집중화되었다. 석굴은 돈황관청 번호를 비롯 펠리오 혹은 장대천(張大千) 번호 등 편의에 따라 각기 다른 석굴번호를 갖고 있다. 어떤 곳은 교실 서너 개보다 크고, 또 어떤 곳은 아주 작은 것도 있다. 대개 사각형 모양으로 4벽과 천정부분에 벽화로 가득 채웠고, 중앙에 불상을 봉안했다. 석굴사원의 승리를 보는 것 같다. 막고굴의 예술적 평가는 따로 논할 정도이다. 여기서는 제17굴 즉 장경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0세기 세계 학계에 새로운 독립학문을 수립하게 했으니, 그것은 바로 '돈황학(敦煌學)'이다. 돈황학이 탄생되게 된 배경, 거기에 장경동이 있다. 제17굴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석굴 속에 또 다른 석굴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보물창고였다. 오랜 세월 숨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석굴, 바로 막고굴 가운데서도 장경동이라 부르는 조그마한 제17호 석굴. 1899년 어느 날 도사 왕원록은 숨어 있는 석굴을 발견했다. 왕 도사는 '풍골이 자유분방하며, 일찍이 속세를 벗어나고자' '서방 극락세계가 바로 여기'라면서 막고굴에 새로운 '궁전'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천년 비밀의 창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으로, 바로 '돈황학'이란 독자적 학문체계를 수립하게 한 첫걸음이었다.

장경동에서 발견된 '돈황 유서(遺書)'의 숫자는 약 5만여 두루마리이다. 약간의 목각본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본이다. 서적은 대부분 불경이고, 도교경전 이외 일반생활 속의 자료 등 다양하다.

장경동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기는 동진(東晋)시대 353년의 필사본 〈불설무상경(佛說無常經)〉이고,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은 북송(北宋)시대 1030년의 초본 잡사(雜寫)이다. 앞의 것은 현재 소련에 있고, 뒤의 것은 파리에 있다. 이는 돈황 유물의 약탈 역사를 상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문헌 자료. 이는 막고굴의 역사적 위상을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장경동 안에 홍변 초상작품이 있다. 홍변이 주인공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홍변은 누구인가. 그는 오 씨 가문으로 어려서 출가했고, 티베트 언어 등 이민족 언어에 능해 역경승으로도 활약했다. 9세기 중엽의 일이다. 장경동은 홍변의 영당(影堂) 혹은 기념실로 꾸민 공간이었다. 영당이라면 제사를 올리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주인공 홍변 조각 뒤의 벽화는 보리수와 그 나뭇가지에 정수병과 자루가 걸려 있다. 그 옆에 비구니와 시녀가 그려져 있다. 이러한 홍변 기념관 안에 비밀창고를 별도로 두었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수께끼의 해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유력한 추측은 이렇다.

고비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돈황
中 주변 문화 아닌 독자성 가져
20세기 이르러 '돈황학' 정립돼

서구 열강들 약탈사가 담긴 곳
〈왕오천축국전〉도 서구로 유출



돈황 막고굴 입구 모습. 서구에 의해 발견된 돈황 막고굴은 이제 '돈황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장경동 유물 가운데 하한선 자료는 송나라 10세기 무렵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동굴 폐쇄는 11세기 전반일 수 있다. 그 시기의 돈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서하의 난, 막고굴 거주자들은 난을 피해 서둘러 피난 갔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피난설, 폐쇄의 이유이다. 비슷한 시기에 이슬람의 동진(東進)도 검토하게 한다. 불교 파괴를 앞세우면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이슬람 때문에 동굴이 폐쇄되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슬람의 하라간 왕조는 잔인한 전쟁 끝에 11세기 초 타클라마칸 남쪽 호탄을 점령한 바 있다. 폐쇄의 원인으로 외부 세력 침입에 의한 피난이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장경동 소장품 가운데 온전한 대장경 같은 귀한 자료 대신 대부분 잔권 단편(斷片)이어서 실용가치가 적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물품 폐기 장소로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파지 활용을 위한 폐기장이라 해도 출입구를 일반 벽처럼 막고 벽화까지 그려 위장해놓았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아무튼 장경동은 예사스럽지 않게, 뭔가 숨기고자 특별하게 조성한 비밀창고임은 분명하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문을 봉쇄하고 그림으로 위장해 놓았다. 그리고 꼭 1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왕 도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장경동. 누가 돈황 보물을 세상에 알리게 했는가. 우선 헝가리 출신 영국인 마크 오렐 스타인(Mark Aurel Stein)을 주목해야 한다. 페르시아 언어에서 산스크리트에 돌궐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던 그는 간다라의 라호르 동방대학교 총장에 이어 1899년 인도 캘커타 마란라스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그는 중국 탐사를 진행하면서, 1906년 스벤 헤딘 조사의 누란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 대장정에 올랐다. 그런 와중에 돈황 보물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서둘러 현지에 도착했다.

스타인은 왕 도사를 설득했고, 드디어 장경동 문을 열게 했다. 스타인은 은자 2백냥을 왕도사에게 지불했을 뿐, 사실 돈황 유물을 약탈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스타인 컬렉션은 오늘날 런던 브리티쉬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다. 두루마리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영국 소장 돈황 유서(遺書)는 약 1만5천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대단한 분량이다. 이런 '성과' 때문이었을까, 스타인은 영국 국왕으로부터 작위를 받았고, 케임브리지대학의 명예박사학위도 받았고, 거액의 현찰도 받았다.

영국의 스타인 이외 프랑스의 펠리오의 역할도 주목하게 한다. 그는 1900년 프랑스 극동아카데미의 수석위원으로 중국 베이징에 파견되기도 했다. 동양학 전문학자인 펠리오는 1908년 돈황에 도착했다. 스타인은 장경동 문을 열고 들어간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

"1908년 3월 3일 새벽 무렵에 천년간 은밀하게 숨겨져 온 보고(寶庫)로 들어갔다. 발굴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벌써 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실로 많은 무리들이 왕래하며 수색했기 때문에 문서들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석굴 안으로 들어가 보고서 경악했다. 석굴의 세 모퉁이에 쌓여 있는 문서와 유물은 깊이가 2미터에 이르렀고, 또 50권씩 쌓인 것이어서 높이가 사람 키보다 컸다. 두루마리는 두세 개의 큰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고, 거대한 티베트어 필사본은 경판과 함께 그것들을 감싸고 동굴의 모퉁이에 쌓여 있었다."

이런 자료를 적당히 보는 데만도 최소 6개월은 필요할 것 같았다는 것. 하지만 펠리오는 3주간에 걸쳐 선별작업을 했다. 동양 고대 언어에 능숙했던 그는 자료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집품을 해외로 반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문화재를 팔 자격도 없는 왕도사에게 불과 백은(白銀) 5백냥(약 90파운드)을 건네고, 다량의 보물을 배에 실을 수 있었다. 펠리오가 확보한 돈황유서는 총 6천 두루마리 정도였다. 수량은 스타인보다 적었지만 가치는 훨씬 높았다. 펠리오 컬렉션은 376장의 사진으로 촬영되어 〈돈황의 동굴(1924)〉이란 책으로 출판되었다. 돈황 예술의 첫 출판물로 역시 '돈황학' 수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서방세계로 유출된 돈황 자료의 85%는 불경 두루마리이다. 흥미로운 점 하나. 펠리오 컬렉션 가운데 신라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루마리는 앞과 뒷부분이 없는 닥나무 종이의 필사본이다. 처음에는 저자와 책명조차 알 수 없었으나, 뒤에 연구에 의해 혜초의 인도 기행문임을 알게 되었다. 막고굴 비밀창고에 신라 스님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니, 이는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고대 인도를 여행했던 신라승의 체취, 이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돈황은 예사스러운 곳이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혜초 기행문을 비롯 돈황학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미비함이다. 혜초의 이름을 확인한 것은 중국에 이어 일본 학자들에 의해 연구성과를 이룩했다. 돈황은 우리 문화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돈황학의 연구에 우리도 박차를 가할 때이다. 아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돈황 예술은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 당나라 시대 토번(티베트)은 돈황을 점령, 60여 년간 통치했다. 토번은 불교국가여서 돈황에서도 불교 흥성을 불러 와, 인구 3만명 수준에 승려 1천명이상의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장안에서 불교 탄압의 칼바람이 불 때도 돈황은 '외지'여서 피해 갈 수 있었다. 그런데 1천년간 폐허로 숨어 있었다. 돈황의 위상은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세계적 불교미술관 돈황 막고굴. 우리와 보다 친해질 이유는 너무 많다. 이제 관광 수준에서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하리라.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가야왕도 500년, 가야문화 2000년 그혼과 함께하는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

- 수로왕비 허황옥, 가락국사 장유화상 선양 다례제
- 김해와 인연한 무주고혼 추모 영산재
- 시민과 함께하는 가야문화중흥기원 1080배

정도스님 부모은중경 서각, 인경체험 및 전시
천불선원 선공스님과 함께하는 발우공양 시연
여여스님 108산꽃차·산야초 효소전시·무료시음
무공스님, 산야초액 오색 주먹밥 5,000개 체험
외국인 우리말·청소년·주부·가족·실버 노래자랑

기 간 : 9월 14(목), 15(금),16(토),17(일)
장 소 : 대성동 고분군 (경전철 박물관역)
주 최 :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진흥원
주 관 : 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
행사요강 NAVER 영남매일 검색
문의전화 : 055-329-7005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북한 불교는 화쟁을 어떻게 이해할까

김유리 씨, 불교학연구회서 '북한 화쟁사상' 발표

남북한 화쟁 연구사 분석 '눈길'
北 "화쟁, 상대주의적 궤변 불과"
변증법적 특유 개념 적용해 왜곡

이질화된 양측 학설 조화 중요해
"문화재 복원·동질성 회복 나서야"

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불교사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유리 씨는 9월 9일 '대승불교 교학과 현대적 응용'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 가을 논문발표회에서 '북한의 화쟁 사상 이해' 논문을 발표했다. 김 씨는 논문에서 남한과 북한의 화쟁 연구 현황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했다.

김 씨에 따르면 남한에서 화쟁 연구는 화쟁의 개념과 논리를 도출시키는 사상적 연구와 사회적 실천 방안을 살피는 응용적 연구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사상적 체계가 동원되는 북한에서의 화쟁 연구는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 해석된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의 경우 불교를 신앙과 교학의 측면보다 문화유산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찰 복원의 경우도 외부 선전과 관광에 목적은 둔 것이지 신앙적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에서 불교사상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고, 〈조선철학사개요(1986)〉·〈조선철학전사(2010)〉·〈철학사전〉 등에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김 씨는 최근 북한이 원효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원효에 대해 "가치있는 논리사상을 내놓아 논리학 발전에 일정한 기여했다", "우리나라 불교계 통합에 이론적 기초를 닦았다" 등의 우호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김 씨는 북한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변증법적 논리로 화쟁을 해석해, 원효 사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북한은 원효 사상을 변증법적 개념으로 왜곡시켰다. 게다가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화쟁 사상을 변증법적 발전에 비춰 상대주의적 궤변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일찍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설계했던 북한에서 화쟁과 불교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협소한 공간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질화된 양측의 문화와 정체성 등에 대한 조화는 정치적 통일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남과 북이 불교철학의 개념을 함께 정의하고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화쟁의 가르침에 입각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은 원효의 화쟁 사상만큼은 변증법적 체계를 갖춘 사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소통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화유산 공동 복원·동질성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사 과정 연구자들의 논문이 소개됐다. 박현주(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조선후기 불교의 심성 논의에 나타난 종밀의 영향'을, 서정원(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묘승정경〉의 직자에 대한 소고'를, 이길산(서울대 박사과정) 씨는 '〈섭대승론〉 염오의 존재증명 제1증에 관하여 - 불공부병 개념을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논평자로는 손성필(한국고전번역원), 정희경(동국대), 김지연(금강대), 조기룡(동국대), 박기열(금강대), 안환기(서울대)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미 대둔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9월 1일 공고



구미 대둔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된다.〈사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구미 대둔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구미 대둔사는 신라 눌지왕 30년(446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려 고종 18년(1231년) 몽골족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것을 충렬왕의 아들 왕소군이 출가해 재건했다. 그 후 조선 선조 39년(1606년) 사명대사 유정이 중건해 승군을 주둔시켰다.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 자리이며, 현재 자리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둔사 옛터가 남아 있다. 현재 대웅전은 진입로에 요사채, 입구 오른쪽으로 명부전, 왼쪽으로는 석축을 두고 있으며 명부전 북쪽으로 3단의 응진전 등이 남아 있다.

1987년 대웅전 수리 중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광해군 6년(1614년)부터 순조 4년(1804년)까지 다섯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붕에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장식기와)가 다수 남아 있어 건물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대웅전은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다포(多包)계 건물로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강직하면서도 장식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7~18세기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물천장 등의 구조와 내부 닫집의 섬세한 조각형태 그리고 건립 당시로 추정되는 단청문양이 잘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보존과학회 새 회장에 한경순 교수

9월 2일 선출… 임기 2년



문화재 보존, 수리 연구을 진행해 온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새 회장에 한경순 건국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는 9월 2일 제14대 학회장엔 한경순 교수를 선출했다. 한 교수는 조계종 성보환경보전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달청 예산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는 1991년 설립됐으며, 국내 문화재 보존분야의 유일한 학회다. 학회는 그간 문화재 보존처리 및 복원 기술 연구 및 자문, 문화재 보존 학술사업, 학술보고서 및 연구서 발간, 문화재 보존 연구인력 양성, 교육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진행해왔다.

한 교수는 "2년의 임기동안 △현 학회제도 개선 △학회지 SCOPUS 등재 △문화재보존기술 교육역량강화 △학회 국제적 위상 향상 등을 목표로 학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초기불교로 '반야심경'을 읽다

이중표 교수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발간



반야심경에 함축된 의미들
초기경전서 확연히 확인돼
경전 형성과정 이해도 높여

〈반야심경〉은 반야부경전의 핵심이 녹아있는 경전으로 불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경전이다. 그래서 관련 해설서들도 수없이 나오기도 했다.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발간한 〈반야심경〉 해설서는 조금 특별하다. 그 독법의 초점이 불교 초기경전인 〈니까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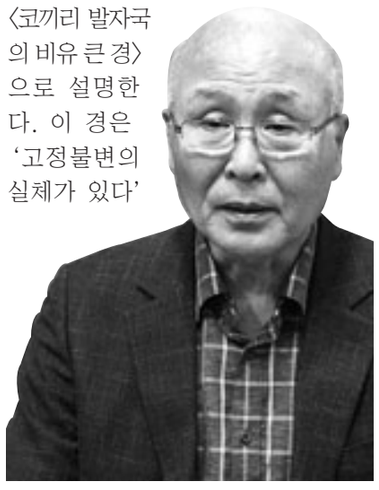
이 교수의 저작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은 말 그대로 〈반야심경〉을 〈니까야〉에 근거해 해석한다.

기실 반야부경전의 특징은 불교의 본질이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에 있다고 설하는 데 있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 즉 깨달음의 지혜를 가리킨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空)'을 이해하고 분별과 개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한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실체가 없는 '무아'를 말한다.

이 교수는 〈반야심경〉의 이러한 가르침의 근원을 〈맛지마 니까야〉에 있는 〈근본법문경〉에서 찾는다. 이 경은 개념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인식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다.

개념적 인식과 체험적 인식은 다시 〈맛지마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으로 설명한다. 이 경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고 개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실체 없는 존재임을 〈쌍윳다 니까야〉와 〈디가 니까야〉를 토대로 설명한다. 이 속에서 '공(空)'과 '연기(緣起)' 사상의 태동을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8종의 〈반야심경〉 한역본을 비교분석해 〈반야심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일반불자들이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경전에 사용된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색즉시공(色卽是空)'에서 '색'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공'은 '비어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반야심경〉에 사용된 언어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초기 경전은 〈니까야〉와 〈아함경〉에 사용된 언어들"이라며 "이 책은 〈니까야〉와 〈아함경〉을 통해 대승경전인 〈반야심경〉을 해석한 것이다. 초기경전을 통해 〈반야심경〉을 살펴보면 결코 난해한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불교학리뷰' 등재지 선정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이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리뷰〉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됐다.

〈불교학리뷰〉의 처음 시작은 새로 출판된 불교학 저술이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흐름을 조망하는 비평지였다. 이후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사·연구 노트·외국 논문의 번역·서평 등 국내 학술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형식을 갖추어 큰 의미를 더 했다.

김성철 불교문화연구소장은 "2006년 창간한 후 11년 만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됐다"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불교학리뷰〉를 만들어 한국과 세계의 불교학을 선도할 수 있는 학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양평 용문사 문화유산 특징은

동북아불교미술硏, 9월 16일 학술대회

양평을 대표하는 사찰인 용문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과 양평 용문사(주지 보인)는 9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양평 용문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의 '용문사, 사찰명과 풍수지형과의 연관성'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연구' △김정원의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연구' △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양평 용문사 범종과 주종장 김치운의 활동 연구'가 발표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용문사 역사 바로알기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용문사의 입지적 특징과 개별 성보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2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자연은 스승이고 벗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이 변화해가듯 사람도 변화해가는 것이다. 흐리고 맑고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날씨처럼 사람도 빛과 어둠 사이에서 흐리고 맑고 바람 불고 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철이 드는 것이다.

세월을 겪다보면 맑은 하늘만 만날 수 없듯 행복과 자유만을 누릴 수 없다. 비바람 몰아치듯 역경과 고난의 터널에 갇힐 수 있고 엄동설한의 폭설이 이어지듯 타는 목마름의 허기진 고독과의 싸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훈풍에 돛단배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고 삭풍에 벌거숭이 되어 광야를 헤맬 수도 있을 터이다. 다만, 세상의 절반이 밤이요, 절반이 낮인 것처럼 절반은 행복한 일이 절반은 불행한 일이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며 반복적으로 생(生)하고 멸(滅)할 뿐이다. 하여, 하루를 점검해 봐도 아침과 낮, 그리고 저녁의 온도가 차이 나듯 말과 행동에 있어 고른 화음(和音)을 지니지 못하고 더러는 흔들리고 때로는 헐떡이는 그림자를 남겼을 터이다.

육체의 온도는 한결같이 적정수준을 지켜오고 있으나 정신의 바람과 욕구, 끌어당김과 빨려듬의 팔만사천가지 생각들은 하늘을 날고 땅바닥을 기며 윤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또 하나의 선지식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자 착한 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불평불만이 없다. 다투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친소(親疎)와 차별이 없고 절대평등의 평화를 보여준다. 이름 모를 들꽃에도 전설이 담겨 있고 햇볕과 그늘에도 교훈이 살아 움직인다. 자연은 그대로 학교이고 선생님이고 교과서이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무언(無言)의 설법자이다. 화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끊임없이 펼쳐 보여준다. 새소리, 물소리, 풀벌레에서 바람소리에 이르기까지 귀만 호강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잔잔하게 덮어준다.

꽃과 새싹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녹음 짙은 푸름에서 낙엽 지는 쓸쓸함까지 자연은 그대로가 신비로움의 천지창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과목이 다른 선생님이요 하늘과 땅의 변화는 우주의 신비를 가르치는 열려 있는 학교이다.

자연을 닮은 지혜가 무위(無爲)의 삶이라고 장자(莊子)는 말하고 있지만 자연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며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교과서이다. 자연은 꾸밈이 없다. 드러내거나 감추지 않는다.

선(線)을 그으며 편 가르는 일이 없고 다툼으로 등 돌리지 않는다. 자연은 정직하다. 순수하다. 있으면 있는 대로 티내거나 뽐내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 죽거나 부끄러워 주눅들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눈·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햇살을 탓하거나 그늘을 비켜가는 다툼 놀이를 즐기지 않는다.

밤에 내리는 이슬을 생명수로 고맙게 받아들이며 곤충과 벌레, 새와 짐승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멸(生滅)을 거듭하며 순응의 미학(美學)으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누구나 생(生)노(老)병(病)사(死)의 정해진 괘도를 달리면서도 좀처럼 순응하려 하지 않는다. 삼천갑자 동방삭처럼 오래 살고 싶고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몸부림치며 불사(不死)의 약을 찾아 헤맨다.

늙어가되 곱게 늙고 병들어 신음하되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개운하게 아름답게 하질 못한다. 죽음이 목에까지 차오른 순간에 이르러 겨우 '미안했다. 고마웠다. 감사하다' 는 말을 힘겹게 남길 뿐.

삭신 멀쩡할 때 정신 또렷할 때 늙고 병들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가족, 친지, 이웃과 배우자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왜 생활의 언어로 활용하지 않는지 자연의 변화, 자연의 무상함에서 배우고 또 배울 일이다. 자연은 한 순간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법이다. 사람 또한 걸어 다니는 자연으로 순간순간 변화하며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낮과 밤이 반반이듯이 사람은 누구도 반반의 행복과 불행을 넘나들며 생각의 윤회 속에서 철이 들다가 막내리게 되어있다. 마지막 그림자를 거두기전에 삭신의 작동이 더 망가지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일이다. 자연을 닮아 평화롭게 넉넉하게.

자연은 드러내거나 감추지 않는다
평화롭고 넉넉한 자연을 닮아보자

無心禪 주창한 백운 禪法

〈무심선〉 〈선법〉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백운경한(白雲景閑:1298~1374)은 고려 말 태고보우(太古普愚), 나옹혜근(懶翁惠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스님이다. 세 사람이 모두 중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 고려불교의 중흥에 힘썼다. 경한도 중국에서 임제종의 18대손인 석옥청공(石屋淸珙)을 참방하고 그의 법을 전해 받았다. 그리하여 려말(麗末)에 석옥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아 임제종지(臨濟宗旨)를 이은 스님이 두 사람인 셈이다. 그러나 경한은 보우가 귀국 한 뒤인 그의 나이 54세 때 중국으로 들어가 법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수법 연대가 보우에 비해 늦다. 그래서 려말의 임제종 중흥조를 일반적으로 보우라 한다. 한 때는 보우가 조계종의 종조로 받들어진 때도 있었다. 경한은 또 지공(指空)을 찾아가 법을 묻기도 했다. 지공은 나옹에게 법을 전해준 사람이다. 경한은 중국 체류기간이 1년 남짓 되었다.

경한은 불후의 명저로 꼽히는 〈직지심경(直指心經)〉을 남겨 이 책으로 인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원래 이 책은 경한이 스승 석옥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으면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전해 받았는데 매우 간략한 내용이었던 것을 나중에 경한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불조의 혈맥이 되는 법문의 정수들을 가려 추가해 정리한 것으로 본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었다. 이 말을 간단히 줄여 〈직지심경〉 혹은 그냥 〈직지〉라 불렀다. 이 〈직지〉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라 하여 널리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직지심경〉이 경한의 선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문헌인데 이에 나타나는 특징은 임제 종지를 이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한이 정통 간화선보다 무심선(無心禪)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심선이란 사량분별에 물들지 않고 시비와 선악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인 무심을 도의 본체로 보는 선관(禪觀)이다. 흔히 선가에서 자주 써온 말인 "마음이 부처다(心卽是佛)"할 때의 부처인 마음이 분별이 없는 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쓰는 말이다.

황벽의 〈전심법요(傳心法要)〉에 배휴(裵休)가 부처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황벽이 대답해 주는 말이 있다.

"마음이 부처이며, 무심 그대로 도이니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 긴 것과 짧은 것, 이것과 저것, 주관과 객관 등을 분별하는 마음이 하나하나가 본래 부처인 것이다. 부처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간화선의 완성자라 일컫는 대혜종고(大慧宗 ᵭ)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는 사람을 멀리 하지 않으며, 무심이 바로 도(道)이니 도는 사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만 이 마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오직 이 도로써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 도로써 중생을 제도하나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이 마음으로써 법을 설하지만 설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법을 설하는 것이며, 제도할 중생이 없어야 진실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마땅히 알라. 삼세의 부처님도 이러하며, 눈앞에 있는 대중들도 이러할 뿐이다."

무심이란 구체적인 대상 속에 있으면서도 대상에 대한 망상분별이 없으므로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한다. 경한이 간화치중보다 무심을 강조한 것은 선의 본질이 방법이나 수단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육조의 선법이나 임제의 선법이 근본에서 보면 다 무심선이기 때문이다. 〈직지〉에서 지공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한 것도 지공의 선법이 무심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한은 고려 말에 실시됐던 승가고시인 공부선(工夫選)의 시관(試官)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오언십이구(五言十二句) 긴 임종게를 남기고 77세에 입적했다.

"77년을 살다가 77년 만에 가노라. 곳곳이 돌아가는 길이요 고향 아닌 곳이 없거늘 어찌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유별나게 고향에 돌아가려 하겠는가? 이 몸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며, 마음 또한 머무는 곳이 없으니 이 몸을 재로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남의 땅을 차지해 묻히게 하지 말라."(七十七年來 七十七年去 處處皆歸路 頭頭是故鄕 何須理舟揖 特地欲歸鄕 我身本不有 心亦無所住 作灰散四方 勿占檀那地)

사섭법 실천하면 보살이 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⑩ 보살의 지향점

菩薩作念。若不能發大精進者。何由能壞此大苦。菩薩與一切眾生同利苦樂皆同。須勤勞得成菩提。菩薩作念。我得菩提已捨與一切眾生。還於生死之中。從初發心還至菩提。復捨與眾生然不可得。菩薩ᳫ利他故行四攝法終不疲厭。猶如大地持一切物終不疲厭。ᳫ己身者自受其樂眾生疲厭。菩薩ᳫ他作樂不生疲厭° 菩薩ᳫ他作樂。見阿鼻苦如涅槃樂。於餘苦邊有何疲厭。若ᳫ一眾生受樂自受無量地獄。常作勇猛與他作樂不生疲厭° 以何因緣ᳫ他作樂不生疲厭。菩薩觀一切眾生。不見他想都如自己。眾生ᳫ結使所著。於一切處皆欲害他。ᳫ悲所持者。於一切苦無不欲受。菩薩ᳫ他受逼迫苦。如苦者樂解脫樂。

번역 | 보살은 생각하되, '만약 크게 정진(精進)을 발하지 못하면 어찌 이 큰 괴로움을 없애리오' 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과 함께 이롭고, 괴롭고, 즐거워하며 비록 수고로워도 보리를 이룹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보리를 얻되 나를 버려 일체 중생과 함께하려고 생사 가운데 돌아간다' 고 합니다. 초발심을 좇아 보리에 이르렀다고 다시 중생을 버림은 불가합니다. 보살은 타인을 이롭게 하려 사섭법(四攝法)을 행하되 끝내 싫어하지 않나니, 마치 대지가 일체의 물건을 지니되 끝내 싫어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즐거움 받음은 싫증이 생기지만 보살은 타인을 위한 즐거움을 짓기에 아비지옥의 고통도 열반락으로 보거늘, 나머지 괴로움인들 무슨 싫증을 내겠습니까.

만약 일체 중생이 즐거움을 받고 자기는 무량지옥의 고를 받아도 늘 용맹하게 타인에게 주는 즐거움 지음에 염증을 내지 않으며, 어떤 인연으로 타인을 위한 즐거움을 짓던지 염증을 내지 않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관하되 타인이라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전부 자신처럼 여깁니다.

중생은 집착에 얽매이는바 일체에 모두 욕심으로 남을 해롭게 하며 자비심을 지니려는 이는 일체의 고통을 받지 않음이 없는데, 보살은 타인을 위해 핍박과 고통을 받고 고통도 해탈락처럼 즐겁습니다.

해설 | 보살이 중생과 함께하는 삶의 지침이자 지향할 실천적 네 가지 방안을 일러 사섭법(四攝法)이라 한다. 중생을 네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말이다.

첫째가 보시섭(布施攝)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재물이나 법을 보시하여 가까운 이를 감동시키고 불법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둘째가 애어섭(愛語攝)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 가까운 이를 불법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

셋째가 이행섭(利行攝)이다. 행위나 생각에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감동시키고 불법에 이끌어 들인다.

넷째가 동사섭(同事攝)이다. 상대편의 근성을 따라 변신하여 친하게 지내며 같이하여 이끌어 들인다.

살다보면 지속적으로 실천하기에 대단히 힘든 수행이 사섭법이다. 구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시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시키며 아름다운 말로 일일이 대꾸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하는 일마다 남을 우선하여 일을 진행시키기가 이익을 남겨야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상대의 근기에 따라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 웃고 울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그렇다고 미워하며 배척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속이 터지는 괴로움도 달게 받아들이는 게 보살의 삶이었으니. 결코 염증을 내지 않는 게 보살의 마음가짐이었으니 말이다.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가야불교 중흥 위해 스님들 나섰다

가야불교문화진흥원,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 개최

국정사업 '가야사 복원' 이바지
9월 14~17일 김해 대성동 일원
"시민 참여 · 화합 이끄는 행사로"
문화진흥원 설립… 복원 '박차'


새롭게 창단된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 스님들 모습.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가야사 복원 사업과 가야불교 중흥을 위해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9월 14~17일 김해 대성동 일원에서 연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 복원'을 국정사업에 포함시킨 가운데, 경남 · 김해 지역 스님들이 이에 발맞춰 가야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가야불교 중흥에 앞장설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은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일원(시민의 종 앞)에서 9월 14~17일 개최한다. 가야불교문화축제는 한국 불교 최초 도래지인 김해 가야 지역을 시민에게 알리고 가야불교문화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국정사업에 포함된 가야사 및 가야사 복원 사업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가야불교문화축제는 불교문화를 소개할 뿐 아니라 시민과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이사장 인해 스님은 "불교문화 체험 뿐 아니라 야단법석 축제의 장으로 시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야사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사원복원, 불교 유적, 불교 유물, 승시장터 등을 열고 가야불교 진흥의 역사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행사는 △불꽃놀이 및 108인 거리 행진 △선승 선공 스님 발우공양 시연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김해사충신 영상 시청 △스님과 함께 주먹밥 5000개 공양 올리기 등이다. 시민참여 행사는 △108번뇌 마음깨기(사기점시 깨기) △짐이 가야왕이로소이다(복식 기념촬영) △대왕초 소원발원 포토존 △실버 · 주부 · 외국인 · 청소년 가요제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요제는 입상자를 위한 풍성한 상금 및 상품권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또한 '108인 거리 퍼레이드'는 14일 오후 4시 가락로 입구인 김해시 부원동 경남은행 앞에서 출발해 대성동 고분군까지 총 22km를 행진한다. 그 외 국악인 김영임, 가수 함중아, 한혜진, 비스타, 걸그룹 BNG가 꾸미는 화려한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인해 스님은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무대와 체험 행사를 마련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정진"이라며 "가야불교중창을 위해 1080배 정진을 진행한다.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가야문화중흥기원 1080배는 9월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번 축제는 (사)행복1%나눔재단과 산하단체 가야문화예술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사)행복1%나눔재단은 지난 5년 동안 김해남산문화축제를 비롯해 김해와 인연한 무주고혼 합동 천도재를 개최했다. 이번 가야불교문화축제와 함께 제6회 무주고혼 합동 천도재를 연다. 천도재는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

한편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4년 전부터 김해 지역에서 가야불교 발굴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스님들을 중심으로 9월 1일 새롭게 창단됐다. 스님들은 가야불교를 위해 학술 연구로 기여하고 세미나 및 정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김해 여여정사에서 '구지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 시작됐다. 2016년 '법등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가야불교중흥을 위한 3000배 참회대법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와 가야불교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어 가야불교 발굴에 앞장서 왔다. (055)329-7005

하성미 기자

통도사, '龍의 얼굴'로 국태민안 기원

9월 30일~11월 6일 개산 1372년 영축문화축제 개최

'귀면'이라고도 불리는 용면. 처용의 얼굴을 무늬화한 것으로 사악한 무리를 막는다고 알려진다. 통도사는 올해 개산 1372년을 맞아 그간 촛불집회, 세월호 등 국난을 겪은 나라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용면을 1,750개 제작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1372주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9월 30일~11월 6일 개최한다.

9월 30일 개막식 행사로는 △스님들의 사진전 '색즉심 심즉색(色卽心 心卽色, 오전 10시)' △오채현 작가의 천진불 조각전 '붓다미소'(오전 10시 30분) △양산 · 용면(귀면)축제-양산의 거리(오전 11시) 등이 준비됐다.

1750개 용면(龍面) 제작 전시
괘불이운, 자장율사 개산 상징
긴 연휴, 가족 위한 장소 제공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스님들의 사진전 색즉심 심즉색(色卽心 心卽色)'은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율원, 학인 스님 등 대중 모두가 동참한다. 전시 작품은 일반인이 평소 보기 힘든 경내 모습을 스님들이 직접 촬영해 선보인다.

또한 '양산 · 용면(귀면)축제-양산의 거리'는 성보박물관 앞 보행로를 장식한다. 통도사가 위치한 양산 지역을 상징화하기 위해 이름이 같은 양산(陽傘)에 용면(龍面)을 그려 양산시민을 반긴다. 용면 양산은 총 700개가 전시되고 용면 유화판화 1,050개도 함께 걸린다. 용의 얼굴이라해서 용면(龍面)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처용의 얼굴을 무늬화한 것이다. 용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귀면(鬼面)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통도사 스님들과 불화장전수자들이 모여 직접 양산과 판화에 작품을 그리고 있다. 특별축하공연 '처용무'도 개막식 때 함께 만날 수 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의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액을 막는 귀면을 특별히 장식한다"며 "최근 세월호, 촛불집회 그리고 북한 핵도발 까지 한국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민들이 평안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모두 11월 6일까지.

통도사는 특히 추석 연휴 기간임을 고려해 9월 30일~10월 9일 오후1시~3시 야외 공연장(일주문 옆)에서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공연'을 연다. 3대가 함께하는 무대 공연으로 마술, 저글링, 동요 등을 마련한다. 그 외 괘불대전 전시, 괘불조성체험, 국화장엄 등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자장 율사의 개산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는 10월 22일 해장보각(도서관)에서 '통도사 의례 및 의식의 재고찰' 학술대회로 시작한다. 개산대재 법요식은 10월 28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열리며, 괘불이운 및 헌공은 10월 29일 산문주차장에서 출발해 괘불대 앞으로 이운해 진행된다.

괘불이운은 개산조인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이운한 것을 상징한다. 참여 대중들은 괘불 이운식에서 꽃을 뿌리며 함께 장엄하고 금강계단 앞에서 헌공 의식을 진행한다. 통도사는 "괘불이운을 무형문화재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일정은 통도사 공식 홈페이지(www.tongdos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통도사는 올해 1372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맞아 용면을 양산과 유화판화에 제작하고 국태민안을 발원한다.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이 태극기가 있는 용면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부산聯 재가안거 회향

9월 1일 홍법사서 회향법회

부산 수행문화를 이끌고 있는 재가안거가 회향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9월 1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재가안거 하안거 회향법회를 진행했다.〈사진〉 회향식은 금강경 독송과 108배 정진이 이어졌고 회장 심산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회장 심산 스님은 "안거 동안 진행한 수행, 기도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그래서 새로운 신행문화를 열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주길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1년 모은 보시금 이웃에 회향해요

태고종 원광사, 백미 10kg 2200포 7개 구청 전달



원광사는 9월 3일 법당에서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태고종 원광사가 추석을 맞아 '나눔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원광사는 1년 동안 모은 백미 10kg 2,200포를 부산 시민을 위해 전달했다.

원광사(주지 지광)는 9월 3일 법당에서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나눔 법회는 원광사 신도들이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것을 회향하는 자리다. 법회를 통해 원광사는 나눔을 통한 보살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는 내빈 소개, 법문, 격려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주지 지광 스님, 태고종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지성 스님, 중강강원 총동문회 부회장 일각 스님, 통도사 포교원 법진 스님이 참여했다. 아울러 권오성 부산시의원, 윤영길 원광사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지광 스님은 "오늘은 1년 동안 모은 나눔의 씨앗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자리"라며 "불교에서 전하는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다. 오늘 이 법회와 나눔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 보시바라밀의 힘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윤영길 신도회장은 "오늘 이 법회는 그동안 우리가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주지 지광 스님이 십시일반 모두 모아 회향하는 것"이라며 "주지 스님의 원력이 있기에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감사했다. 또 "오늘은 2017년 나눔 회향법회이지만 내년에 또 맞을 나눔법회를 위한 시작이다.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1년 동안 신도들은 불전함 · 백미 · 백중 행사 등 보시금으로 나눔에 동참했으며 주지 지광 스님은 모든 보시금을 모아 회향법회를 열고 신도들을 격려했다. 특히 지광 스님은 개인 지원금을 후원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백미는 동래구, 금정구를 비롯해 7개 구청에 10kg 300포를 전달한다. 아울러 금사동 및 장애인협회, 요양기관에도 전할 예정이다.

원광사 자비의 쌀 전달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원광사는 부산 전 지역에 빠짐없이 쌀을 전달하고 아프리카 및 해외 구호 사업으로 식수 우물 파기 사업도 추진한다.

하성미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화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내년 90일 거주 (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사찰내식장, 무위사다비장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 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비빔밥에 담아 전하는 佛法”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전주 황방사 주지 지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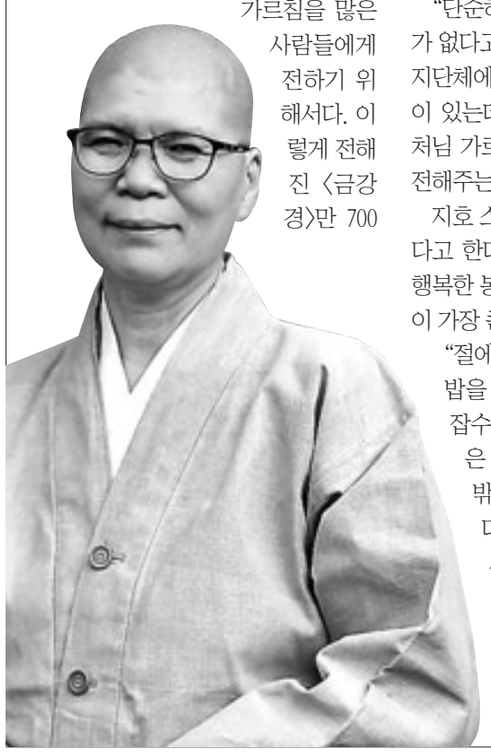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신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어 힘닿는 데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4년 전인 2014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덕진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비빔밥 공양을 시작한 전주 황방사 주지 지호 스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비빔밥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스님은 “처음에는 한 번만 하자고 시작한 일이지만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신도들이 좋아하고 즐겁게 뜻을 모아 중단할 수 없었다”고 그간 활동을 설명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황방사의 덕진공원 급식봉사는 200인분가량의 식사를 준비한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급식을 마무리하려면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처음에는 식기도 없고 취사도구를 마련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특히 신도들이 모두 자기가 맡은 채소며 나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양을 준비하고 있죠.”

지호 스님은 급식봉사가 이제는 단순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봉사하는 날에 꼭 챙겨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다. 금강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전해진 〈금강경〉만 700권에 이른다.



“무조건 경전을 나눠주지는 않아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주지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열심히 읽겠다는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어요.”

사실 황방사는 살림이 넉넉한 절은 아니다. 작은 토굴 임법당인 데다 신도가 많은 편도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요사채 지붕에서 비가 샐 정도로 낡은 건물에서 생활했다.

“솔직히 불사와 봉사를 놓고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 편하자고 불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남을 위한 봉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도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협조해서 비빔밥 봉사하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황방사 비빔밥 봉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15명 남짓이다. 쌀은 공양미로 충당하고 국거리만 절에서 준비한다. 나머지 비빔밥에 들어가는 신선한 채

급식하며 〈금강경〉 법보시
작은 토굴 살림서 정재 모아
“공양 나누며 봉사, 행복”

소들은 모두 신도들이 각자 도맡아 마련한다. 이처럼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하는 황방사 불자들은 덕진공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주저 없이 달려간다. 지역 경로당에서 경로잔치라도 열리면 신도들과 함께 동참한다. 한옥마을 태조어진 이운 행사에는 3,000인분의 비빔밥 공양을 하기도 했다.

“단순하게 봉사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종교나 복지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저는 무료급식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호 스님은 큰 욕심이나 바람이 없다고 한다. 단지 공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봉사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절에 공양올린 신도들이나 비빔밥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맛있게 잡수시는 분들이나 모두 하나같은 마음이니 봉사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봉사를 거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을 행복하게 하며 살길 기원합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 가족 보듬는 지역 불교계

자비신행회, 다문화 여성 요리 교실
좋은이웃, 외국인 근로자 봉사활동
은해사, 다문화 가정 지원 MOU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벌써부터 한가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가족들과 특별한 일정을 계획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이웃 중에는 타향살이로 인해 연휴 때면 더욱 큰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바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 새 식구들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는 그들. 불교계가 추석을 앞두고 나눔 및 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열고 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선사하고 있다.

다문화 요리강좌



광주 다문화여성 25명
불고기 · 된장국 만들어

거리청소 봉사



완주 외국인 노동자 33명
완주군 거리청소 앞장

다문화 템플스테이



영천 25세대 1박 2일간
불교문화 체험

자비신행회 다문화 요리강좌 개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 가정 요리 교실이 열렸다. 광주의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지난 9월 4일부터 8주에 걸쳐 ‘다문화 여성을 위한 행복한 가정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요리 교실은 다문화 여성들이 살림을 꾸리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한국의 가정 요리를 배우는 무료과정으로, 베트남 · 캄보디아 · 중국 · 일본 등 25명의 다문화가정의 주부가 참여했다.

강좌는 매주 2~3개 한국의 대표적 가정요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날 개강식에는 불고기, 된장국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요즘 TV쿡방이 유행인데, 참가자들도 TV에서만 보던 한식 만들기에 너무 재밌어 한다. 향후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 중 · 고급반을 운영해 다문화교육에서 한국요리 강사로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을 위한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 동구청의 추천으로 선발된 주부들이 참여한다.

외국인 노동자 거리청소 봉사활동

완주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리청소 봉사활동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좋은 이웃(대표 정용기 포교사)’는 9월 3일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과 상가 거리에서 거리청소봉사활동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21명, 우즈벡키스탄 5명, 베트남 출신 근로자 5명등 총 33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100 l 들이 6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휴일을 반납하고 거리청소에 나선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거리청소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인근 마트주민은 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건네고, 전북국제교류센터에서는 햄버거와 음료수를 제공하며 격려했다.

정용기 포교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별로 거리청소에 동참하고 있다”며 “타국생활에 힘들어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즐겁게 참여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은해사, 다문화 가구 초청 템플스테이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 신도회와 영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월 2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천지역에 거주하는 600여 세대 다문화 가구 중 25세대를 초청,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주지 돈관 스님은 다문화 가정 참여자들에게 “산사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쌓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은해사 신도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산사에 들리는 ‘가을 오는 소리’

익산 심곡사, 제6회 떡목음악회 개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익산 미륵산 심곡사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떡목음악회가 열렸다.

익산 심곡사(주지 정안)는 9월 2일 경내 떡목공연장에서 ‘희망,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개그맨 박범수 씨 사회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가수 변진섭과 양하영 씨가 출연해 ‘홀로 된다는 것’ ‘가슴앓이’ 등 서정적인 곡을 선사했다. 또 나현아, 머지밴드, 레이디티, 팝페라가수 김명온, 명창 임화영 씨의 공연과 교방춤 전수자 한정희 씨 등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세대 간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펼쳐졌다.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익산지역을 대표하는 산사음악회로 자리 잡은 심곡사 떡목음악회는 2,000여 명의 지역민과 불자들이 운집해 자연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참여한 500여 불자 대중들은 초가을 산사의 정취를 마음껏 누렸다.

심곡사 회주 화평 스님은 “떡목공연장의 역사적 의미와 세대 간 통합을 위해 판소리와 전통무용,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무대를 꾸몄다”며 “가을의 초입에선 산사의 정취에 취해 보시길 바란다. 또 함께 불법 홍포를 발원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사 소녀상 어루만지는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 2일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를 찾아 경내에 자리한 소녀상의 발을 어루만지고 있다. 군산 동국사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참회와 반성의 비)와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소녀상은 일제 말기 우리나라 17세 전후 여학생이 한복 차림의 맨발로 일본쪽을 바라보는 형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 소녀상은 1000여 명의 성금으로 모인 1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2015년 8월 전국에서 11번째로 건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이 있는 이는 모든 하늘을 감동시키며, 천룡(天龍)과 귀신(鬼神)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다.

– 아난분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예언가 육관도인
– 한반도에 상상이상의 대란이 시작된다. 언제 무슨일이 어떻게 되는지 예언상담 하실 분
– 신통력이 약해지고 희미하다 하신 분
– 신통력 일취월장 하고픈데 특별한 기도주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상담을 청해 보십시오.
010-6357-5152
육관도인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부처님 모셔가서 기도하실 분
불상 : 아미타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 소불 / 탱화 : 후불탱화,신중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산신탱화 / 기타 : 각단촛대,향로,다기,종,북,불전함, 인등,연등,목재수미단,운각,방석, 제기그릇,각종 공양그릇, 기타일체
약간의 보시금으로 꼭! 모셔갈 분만 연락바람
경남 통영시
070-8860-0011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배우자를 찾습니다
남자, 임자생(46세)
경기도 일산 거주
공업전문대 졸. 회사원.
참신한 여성 배우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8835-12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비구니
청비스님을
찾습니다
010-8833-4416
으로 전화 바랍니다

천년고찰에서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하실 수 있는 분)
054-383-8032
054-383-2323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3518-9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10-3104-7715
054-286-1182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0-3034-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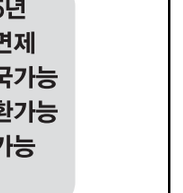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생활역학 강의 (자격증서 제도)**
▷ 자강 : 이석영
▷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 (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 (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불교심리운명상담사 학 생 모 집
– 언 제 : 9월 16일(토) 10시 ~ 12시(입학식), 매주 토요일 6개월간
– 어디서 : 정토불교대학 대법당
– 누 가 : 정토불교대학장 상오 스님
– 무엇을 : 불교심리학, 명리학(운명상담학)
– 어떻게 : 현대감각으로 쉽고 알차게
– 왜 : 나의 심리치료와 상대의 심리(운명) 치료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함
– 자 격 : 누구나 (학력 / 나이 제한없음)
– 혜 택 : 졸업장 수여, 심리상담사 자격증 수여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정원 30명)
정토불교대학 02)2668-3459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2번 출구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 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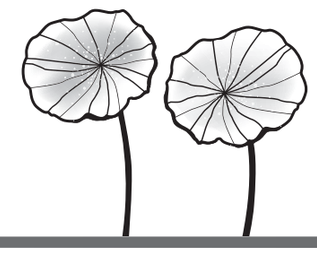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천대천세계의 사나운 불 속이라도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그 속을 어려움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다.

- 무량수경-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괴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별장 같은 2층 요사채 • 토지 2.500㎡
- 마을 주변. 잘가꾸어진 정원. 깨끗한 사찰
- 양도가액 : 8억 5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55평 ◎ 면적 : 2200평
◎ 인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경관 수려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6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급) 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아담한 사찰
- 대지 50평에 100평처럼 사용
- 법당 30평(단청) 2층 방1칸
- 칠성단, 용왕단, 독성각
- 사무실, 주지방, 부엌, 화장실3개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인등500개
- 가액 : 2억7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희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가
- 대지136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식당겸 요사74평,
- 그린상가 2층
- 가액 : 평당 1,500만원
- 주차장 완비

010-3752-2601

논산 사찰(급) 안내

- 조용한 마을 사찰
- 토지 400㎡,목조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마을뒷편사찰. 깨끗하고 운영이잘 됨
- 스님사정으로 양도
- 양도가액 : 1억3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원, 월150만 시설비 2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사찰 안내 및 전세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4-26
- 대지 : 133.3㎡
- 3층건물 2종근생 올 리모델링
- 가액 : 양도 6억, 전세 2억 (대출 2억 있음, 승계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소재
- 부지 : 3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단청),기타:석등
- 요사채:2동50평,산신각:5평
- 가액 : 4억2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사찰로 좋습니다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청기와,단청,2층)
- 요사채 : 35평(종무소,1층)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하기에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5분 거리
-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토지 300평 공유지분 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도심 속 깊은 암자
- 가액 : 10억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화장실3평,기와집,산신각 5평, 요사채 25평,종무소 18평 요사채공양실 20평,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6억 1천만원

010-8528-4026
(주지스님 직통)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 신림면
- 종교 용지 570평
- 터밭 278평, 건물 3동 약 60평
- 청룡 백호가 잘 되어있는 터
- 가액 : 3억 5천만원

011-369-3859
장난전화 사절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하마정 교차로 큰 대로변 위치
- 상가건물 2층 약 35평
- 방 5개, 주방, 화장실, 큰 거실 등 시설 특A급 완비. 사무실,포교원 다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권리금 조금

010-9208-4030
051-862-6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2평, 창고 및 화장실 건평 총80평
- 법당 산신각은 특수 슈퍼하이칠, 경량철골판넬
- 텃밭별도 년 20만원 500평
- 가액 : 1억7천

010-4726-64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 상가 4층 약 5 ~ 60평
- 삼존불 :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 황토방
- 약 15년 법회(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산사로 이전)

010-3305-53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 방 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팔공산하
- 춘하추동 경관이 아름답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는 곳
- 총 450평, 하우스 100평안에 CCTV 2대, 법당 20평, 방2개, 화장실 2개, 공양간 약 50평, 텃밭 150평, 과실수, 주차장
- 가액 : 2억 3천

010-4504-7809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 법당563번지, 요사채, 찜질방 553번지 임야 산110-6번지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처사방, 찜질방 563번지 대지147평 /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 전기는 개인전기로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음. 정화조 시설
- 가액: 모든 집기 포함은 약 2억원 집기가 필요 없다면 1억 5천 가능함

010-5348-20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010-8551-33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 남성동 어시장 번화가
- 3층 63평, 법당,대중방,스님방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3039-885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 1, 방2, 세면장, 실내 화장실
- 벽돌조 32평 독채, 건물 개인 등기필
- 남향 교통좋음(2차선 큰길 변)
- 대지 : 공동사용 도지료 1년 35만원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전체 1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만원

02)2062-4488

사찰 양도 및 전세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대중교통 편리함 (도보로 5분 정도 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사찰터(절암자)안내상담전문

- 양도 양수 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정보 많음
-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 성의로 상담 합니다

(불자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업자등록) 607-46-1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일산시장앞 대로변중심지역
- 7년하던 곳 확장이전 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3층 40평 정도 법당
- 방2개, 공양실겸 부엌, 화장실 2개 지장보살님 모셔져있습니다
- 가액 : 보증금 3백40십만원 시설합 1,400백

010-2847-6289

사 찰 안 내

- 위치 : 율산광역시 율주군
- 산세 좋고 물 좋은 힐링사찰 기도하기 좋은 사찰
- 주변 사용 가능한 국유지 많음
- 대웅전, 산신각, 기와단청, 요사채2동
- 면적 34,000㎡, 건물 약 170㎡
- 가액 : 6억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8백 평
- 가액: 1억8백만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 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포교원 양도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가액 : 보 1천만원 월 130만원

02-571-9197

사찰 터 및 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46번지
- 답 970평
- 평사리뜰이 아름답게보이는 좋은터
- 사찰 터 및 팬션, 전원주택지로 적합
- 가액 : 평당 30만원

010-3119-1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
- 부지: 대지 300평 (500평 사용가능)
- 법당 40평, 요사 60평 외 1동(90평)
- 산속, 차량 진입, 경관 수려
- 가액 : 2억 8천

010-4586-4525

남향 황토주택

-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 대지190평,건물20평 목조주택
- 남향 소나무숲아래 황토주택
- 전원주택,별장,기도원,암자
- 찜질방,정자,터밭,방4개
- 2016년.12월 건물 리모델링
- 가액 : 1억5천7백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 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팬숀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일월산 부근 삿갓산 아담한곳
- 마당 앞 계곡물 1급수 자연수
- 땅 500평, 농지 500평, 법당 20평 건축허가 완, 토목공사 완, 현대식 목재건물 요사채 30평 완공
- 가액 : 2억 4천(가격절충)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경북도청 8km, 예천군청 9km
- 조용한 사찰, 요사채 30평
- 방 3, 주방, 거실, 욕실, 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3526-70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주차장완비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방 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3천 500만원

010-2498-7899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 : 지리산 동쪽 끝자락
- 평수: 275평, 한옥건물 2동 30평
- 조용한 호숫가 스님 공부하기 좋은 암자
- 가액: 매매 2억 9천만원
- 임대 : 전세 7천만원

010-3869-67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대지 총1100평 (대지 300평,답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15평
- 가액 : 2억

010-3806-327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흑탱화,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 가액 : 은행5천만원 안고 1억

010-2857-281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3분거리,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앞,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
- 종교부지 : 전답 1,300평
- 건물: 건평 60평
- 1층 법당 방4개, 주방, 욕조, 화장실
- 가액 : 3억 9천만원 (융자없음)

02-2675-6581~2

현대불교신문
구 독 신 청
02)2004-8212



전자가상화폐 붐 속, 불교도 '하이-텍'

〈high-tech: 최첨단의〉

불자 프로그래머들, 전자가상화폐 '카르마 코인' 개발



전 세계에서 전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유행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카르마 코인'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Wisdom Quarterly

新 불교 경제 구도 생성 위함

명상·불교 교육 통해 벌고

'로터스 네트워크'서 사용 가능

"가상화폐로 '종교 부패' 방지"

비트코인(bitcoin: P2P방식의 온라인 가상화폐)의 시가 총액이 84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 가상화폐가 출시돼 눈길을 끈다.

불자 프로그래머들이 불교 가상화폐인 '카르마 코인'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통해 만들어냈다고 8월 10일 '라이언스로어'가 전했다. 이 '카르마 코인'은 첨단 불교 공동체 출범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로터스 네트워크' 등 특정 불교커뮤니티에서 활용 가능하다. 카르마 코인은 명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행위 등을 통해 벌 수 있다.

카르마 코인의 개발자들은 "이 가상화폐로 불자들이 돈을 정도(正道)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또한 부처님 법 중 보시행이나 관용을 본받아 일반 통화를 사용할 때 물질주의에 속박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자 경제' 구도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카르마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카르마코인은 △불교 강의 시청 △기부 △로터스 네트워크 월정액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로터스 네트워크가 매달 유료로 독점 제공하는 양질의 불교 콘텐츠가 가장 인기를 끈다. 사용자들은 화폐로 사용되는 카르마 코인을 명상 등으로 금세 다시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한다.

전자 가상화폐에는 항상 안정성 문제가 뒤따른다.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 "기본 화폐의 기능에 계약서 작성 등 안정성을 보장했다"며 "이 방식을 통해 전자 가상화폐 사기와 부작용등을 없앴다. 부작용 걱정은 덜고, 교리나 수행법을 쉽고 재밌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발자들은 이외에도 간단한 질문에 대답해주는 챗봇(chatbot)처럼 명상이나 교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을 구상 중이다. 또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착용하는 과학기술)의 개발로 뇌파 등 생체 정보를 파악해 VR헤드셋과 함께 실감나는 자연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차후 기술이 발전되면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개발자들은 "아마 100년 내로 각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속속 가입할 것이다. 로터스 네트워크는 가능한 비전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라이언스로어'는 "'불교가 기술을 쫓아가야 하는가'는 영원한 논제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불자들은 부처님을 따라 항상 혁신을 선도해왔다. 불교는 항상 그 시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해왔다"며 "다만 불교가 기술을 주도적으로 결합할지, 기술이 불교를 집어 삼킬지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사용이 확대되면 종교 부패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평론가 안톤 두스(Anton Doos)가 "로터스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의 사용 확대를 통해 종교적 부패를 대부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세계 사찰 곳곳에 배치된 보시함에 시주를 하면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불자들이 (불교)수업에 대한 강의료, 보시금 등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면 그 자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The memo'는 8월 29일 보도했다.

안톤 두스는 "신도들에게 투명한 재정 현황을 공개하기 위해 모든 종교기관은 기부금 등 경제 활동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독경·설법하는 만능 '로봇 승려'

일본 '엔딩산업전'에 장례 주관 승려 '페퍼' 등장

소프트뱅크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독경 비용 5만엔… 직업 목록 추가돼

독경 뿐 아니라 스스로 북을 두드리고 설법하는 '승려 로봇'이 개발돼 화제다. 로봇 '페퍼(Pepper)'는 로봇이 가질 수 있는 직업 목록에 추가됐다.

일본 다수 언론에 따르면 8월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임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총망라한 '엔딩산업전 2017'에 장례를 주관하는 로봇 승려 '페퍼'(Pepper)가 등장했다.

검은색 승복을 입은 로봇 페퍼가 독경을 시작하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일제히 사진을 찍었다. 독경을 마친 페퍼는 몸을 돌려 설법을 시작했다. "행복에 대한 책을 산다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페퍼는 원하는 종파의 형식에 맞게 북을 두드리고 경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장례음악 연주, 조문객 접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면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장례식을 촬영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를 생중계로 전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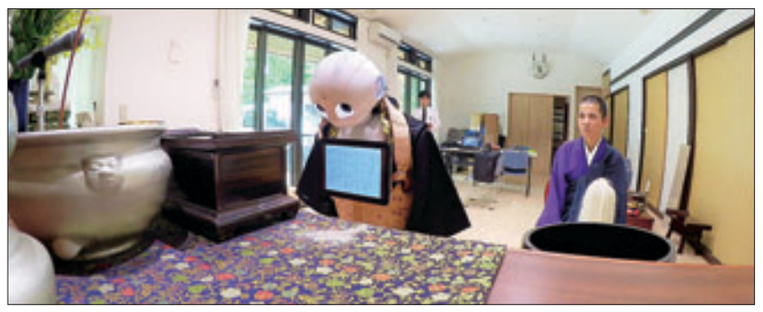
로봇 독경 비용은 5만 엔(한화 약 52만원)으로 스님이 직접 할 경우의 비용인 20만 엔 보다 훨씬 저렴하다.

페퍼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사가 만든 유명 로봇이다. 세계 최초의 감정인식 로봇으로도 불리는 페퍼는 상대방의 현재 기분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위로를 건네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닛세이에코' 업체는 페퍼를 사들여 로봇 승려사업을 시작했다. 업체는 페퍼에게 장례식에 자주 활용되는 경전 내용 및 다양한 의식 절차를 입력했다.

닛세이에코의 야마구치 아쓰시 씨는 "상당수 일본 사찰이 주지가 고령화되면서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찰의 여러 행사를 할 때 로봇이 부주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독경을 하고 스스로 북을 두드리고 설법을 하는 '승려 로봇'이 개발돼 화제다.
사진출처=Japantimes.com

'와이파이' 내리는 자비의 부처상

일본 삿포로 '부처님 언덕'의 불상

'BUDDHA' 명칭 와이파이 '화제'

일본 삿포로의 한 불상에서 와이파이가 나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 디자인 전문 매체 '디젠' 등 외신은 삿포로의 '부처님 언덕(Hill of Buddha)'을 조명했다. 세계적 건축가 안다 다다오에 의해 2015년 건축된 부처님 언덕은 제작기간만 15년이 걸릴 만큼 그 규모와 디자인이 장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부처님 언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이 장소가 사실 공동묘지일 뿐 아니라, 한 가운데 불상에서 와이파이가 나와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세계적 건축가 안다 다다오가 설계한 일본 북해도의 한 공원묘지에는 와이파이가 나오는 불상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디젠

안도는 "공동묘지 속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목을 끄는 멋진 기도회장을 만들고자 했다. 이 공동묘지의 비탈에 숨겨져 부처님의 머리만 보이도록 설계했다"고 '도무스 매거진'을 통해 설명했다. 안도는 이어 "지금까지 불상은 그저 벌판에 홀로 서있어서 불안한 인상을 주었는데, 평화로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불상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는 라벤더가 만개한 언덕으로 부처님의 머리까지 덮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기도회장 안으로 들어가면 부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다. 둥글게 열려있는 천장으로 들어오는 빛은 부처님의 후광이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디젠'은 "세계적 거장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 멋진 작품"이라며 "누구라도 이 앞에 서면 불상의 웅장함에 압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상 가까이 다가가면 와이파이가 잡힌다.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명소의 명칭이 와이파이 이름으로 활용되지만, 이 공원의 와이파이 이름은 'BUDDHA'다. 공원 한편에는 불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와이파이 마크도 표현했다.

이처럼 공원 곳곳의 재치 있는 요소들이 공동묘지임을 잊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아름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美 최대 캄보디아 불교 사찰

대형 연못 만들어 불상 모셔

미국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사찰 와트 뮤니소타람(Watt Munisotaram)이 새로운 연못과 대형 불상을 선보였다. 캄보디아계 미국인 7,000여명은 최근 와트 뮤니소타람의 연못 개원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

뮤니소타람 사원은 29주년 기념과 더불어 연못 및 불상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3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전 세계의 140명의 스님들을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약 3만평의 넓이의 연못에는 약 7m 높이의 불상이 세워졌다. 이 연못과 불상을 짓기까지 2년의 시간과 53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뮤니소타람 사원 주지 소니 레이 스님은 "이것은 일생일대의 일이자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사찰인 와트 뮤니소타람(Watt Munisotaram)이 새로운 연못과 대형 불상을 선보였다.
사진출처=twincities.com

미네소타 햄튼 지역에 16헥타르의 부지에 위치한 뮤니소타람 사원은 역동적인 색채와 독특한 동남아시아 건축양식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스턴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캄보디아 공동체 사찰보다 커 미국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7〉 연민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존재에 대한 마음표현이 '연민' 실천

몇 년 전, 인도 보드가야에서 명상 수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콜카타로 가서 친구와 함께 며칠 지낸 뒤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보드가야로 가는 기차를 타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에 맞춰 기차역에 도착하려면 릭샤라는 인력거를 잡아타야 했습니다.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릭샤를 끄는데 콜카타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릭샤를 끌고 달립니다. 사람이 힘들게 끄는 릭샤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릭샤를 타고 역까지 갔습니다.

릭샤를 끄는 사람은 우리를 어두운 거리와 뒷골목으로 이어진 지름길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릭샤를 멈춰 세우더니, 나를 릭샤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흔히 그렇듯,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도 우리를 도와줄 만큼 친절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맙소사, 이 사람이 나를 끌어내려서 폭행을 한 뒤에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때 릭샤에 함께 앉아 있던 친구가 그 남자를 밀쳐 내고는, 릭샤를 끄는 사람에게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역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보드가야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몹시 떨리고 화가 났습니다. 내게 수행을 지도해 준 스승인 문인드라(Munindra) 선생에게 콜카타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샤론. 마음을 자애로움으로 가득 채워서 당신의 우산으로 그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어야 했는데!"

우리는 흔히 마음을 열고 진실을 사랑하며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수동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쳐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든 미소만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연민은 결코 나약하지 않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 생기는 힘입니다. 연민을 간직하고 있다면 괴로움을 잘 견뎌 낼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나에게 있든 다른 사람에게 있든 두려움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능숙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고귀한 마음 중 두 번째인 연민을 기르는 것은, 붓다가 그랬듯 예외 없이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위한 동정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잘못 이해한 연민의 뜻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
현상의 원인 이해한 뒤
마음 열 때 연민 생긴다

괴로움에 마음 열어 놓기

우리가 정신적 수행을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삶의 자연스러운 요소들을 착각 없이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보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연민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괴로움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괴로움에 마음을 '열어 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연민을 기르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이는 괴로움에 마음을 열고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괴로움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기 위해 어느 정도 마음 아픈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강요에 의해 억지로 마음을 열고자 한다면 수행의 본래 목적이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을 없애고 괴로움을 치워 버릴 수 있는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문이나 잡지, 영화나 텔레비전의 폭력물을 탐욕스럽게 찾아보는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으로 눈앞의 괴로움을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 비극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제력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정의감으로 가득 찬 분노, 두려움 또는 슬픔을 느낍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연민의 가까운 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은 단지 연민으로 위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민의 멀리 있는 적'은 바로 잔인함인데, 이 감정은 연민과 매우 상반되는 상태이므로 알아채기 쉽습니다. 혐오감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닐 때에는 '연민'과 '연민의 적'을 구별하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단체 또는 정치적 상황에서 권력이 남용된 부당함, 또는 폭력적인 상황을 보거나 들었을 때 분노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목격하면 우리 자신도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슬픔이나 비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가슴이 떨리는 상태'인 연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실 분노나 두려움 그리고 슬픔 같은 감정들은 연민과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분노나 두려움, 슬픔과 같은 혐오스러운 감정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반대되는 감정들이 공존하면서 빚어내는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건의 본질을 파악하면

연민으로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과 그 일을 일어나게 한 조건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지점이나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여러 상황들을 모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현상계(조건 지워진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나서,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과에만 관심을 갖다가도 순식간에 그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여러 조건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로 괴로움을 겪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나치게 두려움이 많은 성격으로 자라난 여성이었고, 다른 사람은 분노로 가득 찬 성격으로 성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된 여자는 그를 매우 싫어해서 심지어 그가 해고당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의 성장 배경을 어렴풋이 알게 된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은 사실을 알고는 "그는 내 형제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이해심은 누군가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그저 잊어버리거나 눈감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이 일어난 상황과 그 조건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온 모든 요소를 볼 수 있고 그 조건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인격적인 힘들이 상호 작용하여 우리의 '자아들(selves)'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용서와 연민을 위해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연민이란, 어떤 상황에서건 다양한 조건과 구성 요소들을 관찰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조건들과 전체 맥락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마음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헤로인은 아주 위험한 마약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은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틀에 박힌 분별심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연민과 이해심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붓다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몸소 연민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이 보여 주신 연민은 가장 개인적인 수준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살아 있는 존재들에 대한 그분의 헌신은, 병든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 해탈의 길을 가르치는 일에까지 두루 이르렀습니다. 그분에게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붓다가 생존할 당시 한 비구가 심각한 병에 걸려 매우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그 비구의 온몸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렸고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냄새도 아주 고약해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돌봐 주는 이도 없이 그저 자리에 누워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붓다는 그 비구의 처소로 가서 상처를 닦아 주고 보살피며 그를 안심시켰고 정신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후에 붓다는 수행승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라도 나를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병든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백 년 후, 연민에 찬 또 다른 영적 스승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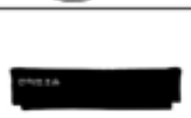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 반응하게 되고, 지혜로써 그 반응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고 돌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연민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연민을 향상시키는 일은 단지 관념론적인 겉치레가 아닙니다. 연민은 우리가 괴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마음을 열어 놓을 때 일어납니다. 삶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과 가치에 대한 감각은 연민의 마음에서 생겨나며,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나 가장 강렬한 욕구는 바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됩니다.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밥 죽순 식물성 탄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 (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만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밥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얼려 기운 뻥뻥!
스드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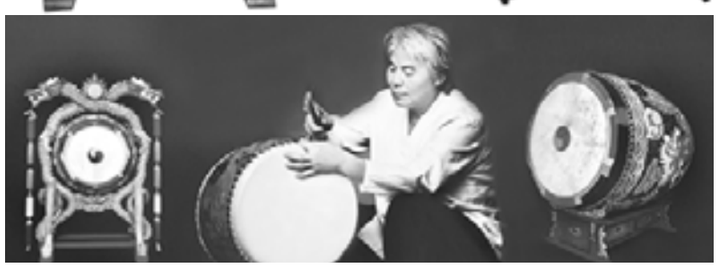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온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대행 스님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고서도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애타는 고통과 쓰라린 눈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도 바람결같이 돌아가서 잠시 잠깐이고, 고(苦)로 인해 아프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가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걸어가야만이 올바른 건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비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조 홍인 선사가 금강경 강의를 하시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죠. "불성이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마음이 내 불성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성이 스스로 끄달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생활이 걸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요건 내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조금 더 보태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랬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즉 이 세상 이치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가 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직결돼 있느냐.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천지의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니라.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의 진리는 인간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대승 소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하면 잘살고 못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듯이 '사람' 하면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전에 육조 스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 참인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그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뭔지 일러 드리겠습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을 하는 것을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내가 "여보, 인제 오세요?" 하면 남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아빠!" 그러고 들어오니까 남편 됐던 건 없어지고 금방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 아비야! 인제 오니? 나 좀 보자."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또 어머니한테로 가니까 고만 아들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화하는 세상입니다. 화해서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정되게 보는 거, 고정되게 듣는 거,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 고정되게 먹는 거,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되게 머물러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진리고 도요, 길이고 참선이고 참입니다. 이 공부 하는 데는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간편하게 얘기합시다. 상을 차려 놓는 데에 접시도 있고 종지도 있고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고 큰 접시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으니까 상에다가 온통 다 차려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승 소승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지는 안 쓸 거다, 대접만 쓸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지만 써야겠다, 이게 옳다' 이런다면 종지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대접만 쓸 거다, 큰 그릇만 쓸 것이다' 한다면 큰 그릇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며 '접시만 쓸 것이다' 한다면 접시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걸로 비유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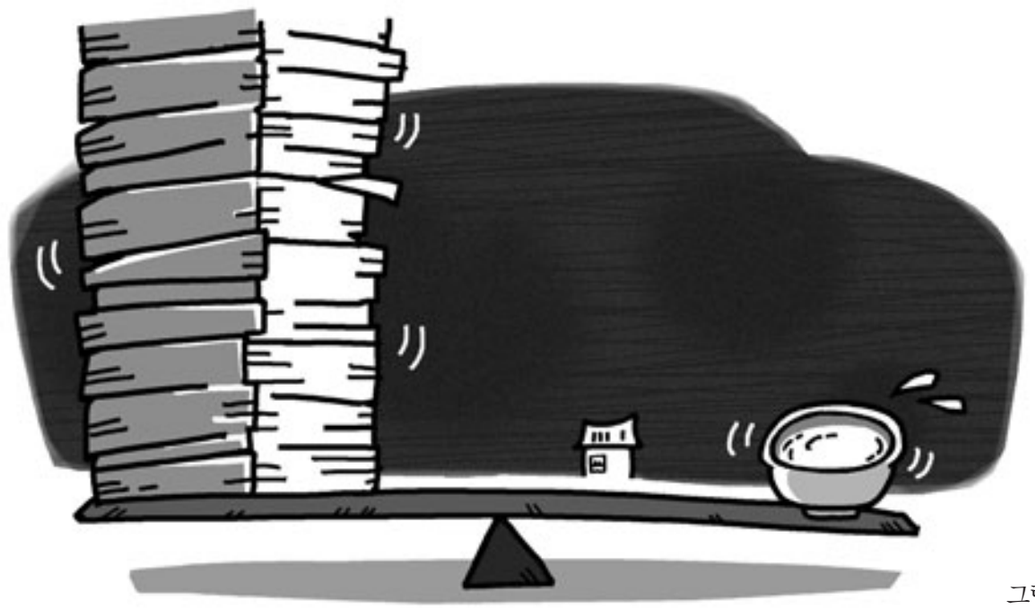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체 만법을 일심으로 들이고 낼 때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걸리지 않게 몽땅 버려서 몽땅 갖추어 가지고 있게 만드는 실천궁행하는 법입니다.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정법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론으로만 경을,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위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하더라도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거는 이차적인 문제죠. 진짜 배고프고 정말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냉장고 문을 턱 열곤 한 그릇 쭉 마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야 죽고 사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니 그건 이차적이죠.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것이 그대로 찰나의 행이요, 정법이요, 중용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참선이며 그대로 행선입니다. 아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 무슨 이론이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이의가 붙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이 자기 몸과 가정과 사회, 국가는 물론 세계, 우주까지도 한 손에 넣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통력을 길러서 원심력으로써 행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즉 말하자면 '아내다' 하면 벌써 가설이 된 거고 '자식이다' 하면 가설이 된 겁니다. '남편이다' 하는 것도 가설이 된 겁니다. 전선의 가설이 됐으니까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까지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시비가 왜 붙습니까?

예전에 뉴욕에서 온 병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축을 받고 왔습니다. 10년이나 그렇게 앓고 있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꼭지가 안 떨어져서 서울까지 나왔답니다. 서울에 와서 날더러 "병이 이렇게 한 10년이 가도 안 낫습니다." 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병을 나한테 내놔 보세요. 그러면 병을 고쳐 주리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로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거기서 탁 트여졌단 말입니다. 병을 내놓으면 고쳐 주겠다고 했더니 말입니다.

한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한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그 마음의 한 도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꿈을 꾸고도 '이것 참 잘못 꿨으니까 오늘 조심해야지. 이것 참 나쁜 꿈인데….' 하고 걱정 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옵니다. 그거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아버지가 됐다가 또 금방 남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이러듯이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것도 한 찰나요,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인공이 나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런 거 뭐, 금방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믿으란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신,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리고 모든 착을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착을 떼시라 그러는 건 말입니다,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부적도 써다 붙이고 누구를 찾아가서 잘된다 못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렇게 기복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찔러 녹여 버려라 하는 것은, 찰나의 생활이니까 잘못된다 잘된다 이것을 떠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우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요? 나부터 알아야죠! 각자 여러분이 모두 나부터 알아야 남에게 주기도 하고 참, 보살행으로써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이게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두루 모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나의 물질적으로 살던 습을, 수억겁 광년을 거쳐 나오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진화되면서 살아온 그 습을 녹여야 합니다. 인간이 됐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떼려면 '아! 내 주인공은 용광로와 같다. 일체 우주와 천지가, 태양이, 월세계가, 혹성들, 별성들 일체 모두가 다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으니 직결이 돼 있는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직결돼 있으니까 내가 마음먹는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알게 되면 차차차차 실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진심으로 믿게 되고 '아하, 나뿐이 아니로구나! 역대 조사들도 일체제불도 다 나한테 직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내 눈부터 틔우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라!

☞ A17면에서 계속

것입니다. 나를 깨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색경을 보시죠. 그 그림자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는데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갖다가 놓고선 엉엉 울었습니다. 묻으려고 해도 땅이 얼어서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대기로다 둘둘 말아 놓은 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걸쳐 놓고 솔가지로 덮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죽은 아이가 춥다고 자기 두루마기까지 벗어서 더 덮어 주면서 어머니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이든 육신의 행이든 똑같단 얘기죠. 행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왜 부인께서는 이렇게 우십니까?" 하니까 "9대 독자인데 이 어린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서 일하러 나갔고요." 하고 울거든요.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계십시오.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오지 못합니다." 하고서는 턱 거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어딜 갔느냐 하면, 환상천을 들러서 무명천을 들러서 불사천을 갔는데 거기에 그 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불사천을 거쳐서 생사천을 가야 천도가 돼서 다시 이리로 오든지 어떻게 뭘로 되든지 하는데 그 불사천에 이름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님이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천왕을 찾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 다시 무명천에 가 보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무명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곳 관리인한테 그 어린애 영혼을 받아 가지곤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초가 거의 다 타 버리고 달랑달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혼백을 넣으니까 그 어린애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참, 공부가 그만큼 되어 있어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죠.

그래서 아이를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 준 그 스님이 "허허" 하고 웃으며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환상천으로 불사천으로 무명천으로 돌아다녀 보니 모든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살아생전에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사천에 가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뜨거워서 거길 지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물을 못 건너가는구나! 많은 마구니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환상인 줄 알지 못해서 의식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 환상천을 떠나지 못하고 거길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물질화돼서 물질, 환상으로만 살다 보면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벽도 없고 지붕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 여기에서 다른 혹성에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불이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불사천을, 즉 말하자면 화탕지옥이라는 데를 건너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잘못되면 그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 펄펄 끓는 물이 있는 데에 빠져 죽을까 봐, 타 죽을까 봐, 데어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존하지 않는 그 그림자에 놀라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우리 두뇌의 구조를 보면 잠재의식으로서의 판단 기능은 바른쪽에 있고, 현재 현상세계로서의 판단 기능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둘이 아니게,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는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만 됩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대승 소승이 따로 없다. 대승도 놓고 소승도 놓아라.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둘이 아니요, 남북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어른과 애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고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저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스승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먼저 늙었기 때문에 그러느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 시공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네들은 애쓰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먼저 늙었겠습니까? 애는 먼저 늙어서 벌써 다시 애가 돼 왔으니까요. 어른은 지금 애가 되려고 가는 길이고요. 하하하…,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루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영령들은 수만 개가 있어도 영령일 뿐이지 그렇게 너 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무역무(無無亦無)' 이렇게도 말을 했죠. 또 마음의 자가발전소라고도 했습니다. 이 자가발전소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법이 없죠. 자가발전소에는 꺼진다 켜진다가 없기 때문에 대승 소승이 없다 이겁니다.

또 이걸 용광로로 표현을 했는데, 용광로에다 작든지 크든지 다 놓는 작업만 한다면 나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재생돼서 나간다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돼 나가는 거니까 잘되고 못되는 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놓는 작업만 애를 써서 해라 이겁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고 다닐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이 세상의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다. 들여도 두드러지지도 않고 내도 줄지도 않는다. 모습도 각각 용도에 따라서 내놓으면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는데, 마음으로 나투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어디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보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듣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삼십이응신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어서 여러분한테 응해 주시되 아프다면 약사로 나투어 주시고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 주시고 산신으로 나투어 주시고 지장으로 나투시고, 수없이 나투시는 그 마음이 한군데서 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 **누구든지 자기부터 알아야 제 눈이 떠지고 제 귀가 트여서**
> **모든 것을 실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 **실천을 못한다면,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이 모두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부닥치는 얘깁니다. 세균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영계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이 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서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명들의 마음들은,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은 나의 마음과 같이 한마음이요, 몸뚱이는 내 몸뚱이와 속에 든 몸뚱이들이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죽거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원통력이 있는 한마음 속에다가, 주인공 속에다가 일체를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몸뚱이로만, 이론적으로만, 망상적으로만 돌아가서 반쪽 50%인 현상세계의 판단만 하고 사는 겁니다. 대뇌의 반쪽으로만 말입니다. 항상 들락거리고 통신은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걸 막아 놓고, 의식적으로 막아 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 악업 선업이 나오는데, 때로 화가 지독하게 나게 하면 그거는 화탕지옥이죠. 선하게 나왔다 악하게 나왔다 하면서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게 하는 수십억 생명들의 마음이 악업 선업으로 인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을 하느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면 내 지배인의 마음이 그 모든 마음들을 같이 한마음으로 굴리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에 있으면서 들락거리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도 두서없이 나오는 병, 두서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 이 모두를 해결하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연극을 보시더라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인공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참 대법을 가지고 계신 석가세존이나 역대 조사들, 과거의 부처님들만 우러르면서 남의 나무에 과실이 잘 열려서 아주 무르익어서만 가지 맛이 나는 것만 보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우습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잘 가꾸어 무르익혀서 만 가지 맛이 나게 한다면 남도 주고 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익은 남의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암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 제자더러 하는 소립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니까 말이야, 잘 익혀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고깃덩어리를 줄에다가 탁 묶어서 개의 눈을 가려 놓고 코에다가 대 주면서 장난들을 하는데 말이지, 코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눈은 가려졌으니 그 개는 눈 가려진 것부터 풀어야 그걸 먹을 수 있을 텐데, 자기 눈 가린 거는 모르고 그걸 벗을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냄새가 나는 그 음식만 먹으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걸 떼 먹으려고 온통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오면서도 웃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습구나. 너는 우습지 않으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하, 스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여쭸죠. "큰스님, 큰스님께서 지금 저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우스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내 눈부터 틔우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그것부터 알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내 눈부터 뜨지 못한다면 그 눈을 가린 개와 같은 격이다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같은 게 아니라 그러하니라."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부터 알아야 제 눈이 떠지고 제 귀가 트여서 모든 것을 실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못한다면,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요상하고 때로는 아리송하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계율이 있고 280계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한다면서 단 5계, 10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기 위해서는 모든 착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놔라 하는 말입니다. "맡겨 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 둘이 아닐 것이요,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니게 나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름해서 대도(大道)니라."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한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님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가셔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고, 자유니까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 대도를 이루지 만약에 누가 하래서 한다면 이건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망상에 끄달려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이럭할 게 뭐 있습니까.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해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마음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내 집의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믿고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9월 24일 제주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불자 세상보기 |

사랑도 상식이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6학년 男초등생과 성관계한 32세 여교사의 일탈 충격적
사랑했다는 변명, 이해 안돼

'사랑' 이란 말 남발해도 되나
취향의 이성 유혹한 도구일 뿐
상식 안의 사랑만이 아름답다

불사음계를 수지한 불자라면
사랑의 오남용 경계하며 살자

그동안 학교현장의 교육질서가 무너졌다는, 탄식의 소리가 많았지만 얼마 전 보도된 32세 여교사와 12세 초등학생 간의 일탈행위는 자못 충격적이었다. 사제지간에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 없지는 않았지만 주로 남자교사와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적 비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제강간사건이라고 규정된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20살 연상의 같은 학교 여교사이고 피해자가 불과 12세의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이 느낀 당혹감은 상당했다. 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을 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간'이나 '유사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성의 장벽이 무너진 현대사회라고 해도 어머니뻘인 여교사와 초등학생 간의 성적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애써 무시해버려도 좋을 지극히 예외적인 일종의 터부(taboo)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보냈다는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만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감히 '사랑'이란 말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도 좋은가라는 인간적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내 체험활동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여교사는 이 6학년 남학생에게 호감을 느꼈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상대가 선생님이라는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던 남학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여교사가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고 만두를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추파를 던졌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학교 교실과 자동차 안에서 여교사의 주도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아무래도 행동거지가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아들의 휴대폰을 검색해 본 부모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여교사의 잘못된 행동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의 여교사는 두 자녀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학부모와 동료교사들로부터도 평판이 꽤 좋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무도 그가 제자인 남학생을 상대로 성적 비행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여교사는 자기보다 20살이나 적은 초등학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버젓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의제강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성적 일탈행위 그 자체임에 틀림없다. 여교사는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항에 적시된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여교사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성인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남발해도 좋은가를.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여교사는 사랑이란 단어를 자기취향의 어린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달콤한 수단으로 오남용했을 뿐이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말은 곧 섹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사랑이란 말을 그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감히 경고하고 싶은 것이다. 사랑도 상식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2세 여교사와 12세 초등학생 간의 비상식적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의제강간이란 범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따가운 비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란 말의 오남용을 경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불사음계를 수지한 모든 불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정부는 왜 창조과학자를 좋아할까

박성진 중소벤처부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선으로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가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07년 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날 자연과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근대 자연과학의 성과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과학회는 1981년 1월 창립했으며, 현재 소망교회를 비롯해 전국 1백여개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기독교 단체다. 국내외 24개 지부에서 이공계 석·박사 회원을 중심으로 약 1천 8백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구·세미나·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공교육 교과서에 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실 정부 인사 중 창조과학회 활동 전력으로 인해 논란된 인물은 박 후보자가 처음은 아니다. 현 정부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자신의 저서 등으로 창조과학론자로 인식돼 청문회에서 "진화론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앞선 정권에서도 창조과학자는 활동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한 장순흥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교수가 임명되며 문제가 됐다.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창조과학자들의 등용을 '종교적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들의 중용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 사례가 201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교과서 시조새 삭제 논란'이다.

당시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는 교육과학부에 청원을 넣었고 '시조새'와 '말의 진화' 등 국내 과학교과서 진화론 내용 중 일부가 삭제 또는 수정되기 직전까지 갔다. 이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교과서에서 균형있게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단체로 창조과학회와 연관성이 깊다.

과학계는 창조과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과학적이며 반지성적이기 때문이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지난 8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과학과 종교와의 갈등은 유사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과학이 종교를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 없지만, 다윈의 진화론이나 생명의 기원은 무기물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한 밀러-유리 실험은 적어도 인간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박 후보자와 정부의 해명대로 창조과학은 신앙에 문제라고 치자.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반지성적' 신앙을 가진 '비과학적' 과학자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번 정권은 이전 정권처럼 '창조'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社說

조계종 내부 갈등 대화로 풀자

조계종 안팎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싸움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적폐로 외치고 있다. 여기에 단식 등 극한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한 백년대계본부가 갈등 중재를 위한 대화위원회를 6일 출범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연대나 총무원이 명분의 불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쪽이 서로의 명분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회 갈등에는 중재역할을 자임했지만 정작 종단 내부 갈등이 격화될 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없다시피 했다. 제3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처한 이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화위원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위원회 구성 촉구를 계기로 불교계 내 갈등해소 방안을 불자들은 모색해야 한다. 현재 불교는 위기다. 불자인구 감소 300만 시대, 불교 각계는 줄어드는 교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고령화되는 기성불자와 줄어드는 청년불자로 인해 위기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포교와 전법, 그리고 신심 증장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현재 갈등을 빚는 이들의 명분은 모두 불교를 위함이다. 모두 조계종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극단으로 배제하고 밀어내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지금, 불교 각계가 각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화합해 불교를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종단 안팎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불교발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는 또 다른 기회다.

한중일, 실효성 있는 '황금유대' 필요

한중일 3국 불교 교류를 상징하는 행사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20회차를 맞았다.

1995년 5월 21~24일 중국 북경 광제사 일원에서 역사적인 1회 대회가 '우호·협력·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래 20여년 동안 총 23번의 대회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회하며 열렸다. 그동안의 대회에는 한국에서만 3442명, 중국 3597명, 일본 2413명의 스님이 참여했다. 약 9400여명의 스님이 3국 불교 교류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오랜 역사를 같이한 3국의 불교가 상호 동질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또 '3국 교류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 교류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다.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나라가 자비와 평화라는 불교적 사명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는 대회로 정착돼가고 있다.

2000년 10월 서울 대회부터 시작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 학술 심포지움도 완전히 정례화됐다. 또한 20번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의 불교도가 동북아 평화와 생태·환경, 불법홍포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제언들이 발표됐다.

문제는 학술대회나 선언문을 통해 제안되는 방안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제언들이 상징적인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중일 불교의 '황금유대'가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그간 대회에서 쏟아진 제언들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한중일 3국 불교의 실천적 노력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달마도족자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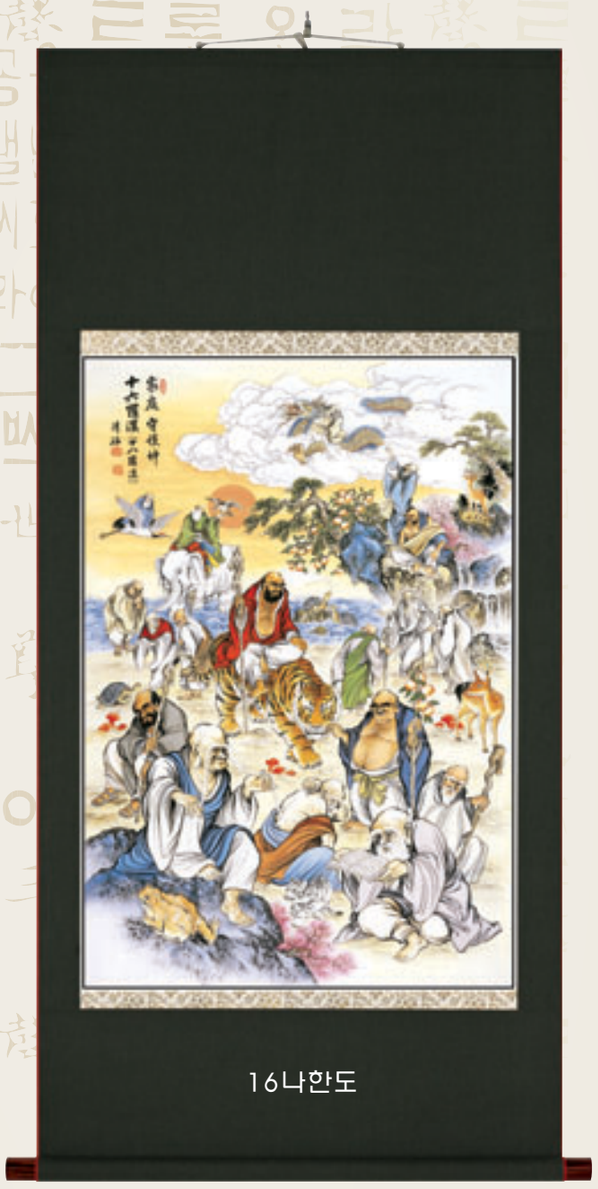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 불 샵 ☎ 02)2004-8213, 010-6701-7709 |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선화의 향기(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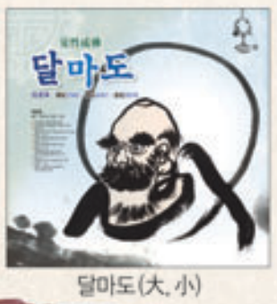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



'쿠무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스님의 모습이 커피향 만큼 은은하게 다가왔다. 부산 송정에서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쿠무다 카페를 일군 스님은 문화포교의 아이콘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튀는 돌' 부산 문화포교 큰 밭 일구다

테마人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

주석 스님 '불교계 연예인'

방송 포교 활동에도 '진력'

BTN불교TV '세상만사' MC

BBS '마음대로' 진행자 맡아

공중파서 '누님 스님' 활약

불사·포교에도 큰 뜻 세워

2009년 함양 대운사 낙성

범어사 말사로 등록한 후

'도심포교' 원력에 해운대로

2013년 쿠무다·대운사 열어

파도가 철썩 거렸다. 가을의 문턱, 쌀쌀한 날씨에도 파도와 바닷바람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다시 파도로 눈길을 돌렸다. 저 바다 끝에서부터 세차게 달려와 모래와 닿자 부서진다. 그 물거품이 파도의 마지막이다. 하지만 또 다시 밀려온다. 반복해서 도전한다.

이러한 파도의 모습과 닮은 삶이 있다. 부산 송정 바다를 마주본 대운사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이다.

주석 스님은 불교계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BTN불교TV의 '세상만사' MC 및 BBS불교방송의 '마음대로(大路)'의 DJ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세상만사'가 MBC 예능프로그램 '세모방'과 콜라보를 선보이며 공중파에도 진출해 '누님 스님'으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방송을 타서' 유명해진 것만은 아니다. 주석 스님은 영어·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사찰 내 다실(茶室)이 아닌 대중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열고 각종 문화포교 활동에 앞장섰다.

주석 스님은 이 모든 활동을 '개혁'과 '도전'이란 단어로 설명했다. 고정된 틀을 깨고, 없던 것을 새로 하려하면 어쩔 수 없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 한다.

주석 스님의 개혁과 도전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한 것일까? 8월 24일 쿠무다 2층에 위치한 대운사에서 주석 스님을 만났다. 불자들과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은 스님은 가장 먼저 출가에 대한 얘기를 털어놨다. 첫 마디는 "멋모르고 출가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30년 동안 부처님은 말없는 미소로써 수많은 대답을 대신하며 주석 스님의 삶을 이끌었다.

"말씀은 없으신데 부처님께 나 자신을 비춰보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음 생에도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시 부처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차를 내려 주며 살짝 숙인 고개 아래, 입가엔 미소가 보였다. 부처님 미소처럼 평안과 행복을 닮았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던 스님은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다. 옅은 미소와 함께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음 생에도 부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며 말끝을 흐렸다.

말 없던 소녀, 제법무상을 받아들이다

1970년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던 기차 안에서 5살 작은 소녀는 멈추지 않고 울었다. 7시간 걸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담장 아래 개나리가 피어있었다. 샛노랗게 핀 개나리가 너무 밝아 야속했는지 소녀는 더 소리치고 울었다. 그래도 엄마에게 돌아갈 순 없었다. 부모의 이혼이 준 충격으로 소녀는 말문을 2년 동안 닫았다.

친할머니 집으로 내려온 후 부처님이 계신 절을 더 자주 찾아 갔다. 자신처럼 침묵하고 있는 부처님을 보며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처님과 마주보고 앉아 눈물을 삼키며 이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가장 말이 많은 그 시기, 안으로 생각이 잠기고 또 깊이 사유되길 반복하다 7살 소녀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직관력은 깊어지고 예민한 7살이 되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시기죠. 어려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나 봐요. 상처가 남았는지 그 때 그 개나리 색이 선명합니다. 지금도 개나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개나리 선물을 안 합니다.(웃음) 트라우마겠죠. 그러다 17살 때 동네에서 만난 첫 사랑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편지를 주고받고 버스타서 우연히 만나면 좋은, 그런 두근거림 있지요?"

하지만 그 황홀한 두근거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 첫사랑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죽음, 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세수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처럼 살더군요. 세상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때 더욱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고정불변은 없다는 것을요. 마음 아팠지만 그때는 별 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8살 때 출가 했습니다."

도전은 곧 시은(施恩)!

주석 스님은 그 후 동학사승가대학에 입학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있길 편하게 여겼다. 하지만 승가대 축제 때 사회자의 공석으로 진행할 대타가 필요했다. 스님은 번쩍 손을 들고 나서야 "놀랐다"고 했다.

"사회가 공석이라 필요하다는 말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죠.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사히 축제를 진행한 것 같아요. 당시 일연 스님이 주지이셨는데 BBS불교방송 개국할 때 추천해주셔서 오디오 테스트를 봤어요. 하지만 그 때 당시는 공부가 더 하고 싶어 거절했죠."

스님은 그 후 동학사승가대 졸업을 앞두고 기도를 선택했다.

"졸업을 앞두고 대부분의 스님들도 진로를 고민합니다. 선방과 학교, 그리고 기도로 나뉘죠. 1995년도 말쯤 천일기도에 입재했습니다. 다라니를 천독하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가 될 때까지 기도만 하는 삶이었죠. 그렇게 3년 정도 하니 장애가 나타나더군요. 이유 없이 슬퍼지고 웃고 짜증도 내고 밉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지만 꿈을 꾸는 날엔 더 신기했어요. 꿈에 내일 누가 오는지 미리 알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생기더군요. 그 때 〈능엄경〉에서 봤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십변마장(五十辨魔障)인데 그 모든 현상이 마장임을 알았죠. 경전의 말씀으로 내 경계를 정확히 알자 모두 사라지더군요."

천일기도 후 스님은 공부할 것을 결심하고 동국대 선학과를 입학했다. 대학시험을 두 달 앞두고 준비에 돌입했지만,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합격했다. 01학번으로 새 학기를 맞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마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부의 중요성을 안거죠. 그리고 승가대 다닐 당시부터 출가자 입장에서 뿐 아니라 학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동국대 불교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우연히 한국불교 간화선을 소개한 번역 사이트를 봤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았어요. 문맥만 맞춰 놓은 영어 번역을 보고 실력을 닦아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추후에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바른길을 제시하고 싶었죠."

그래서 스님은 불교학과 졸업 후 영남대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다. 마치 전생에 배운 바가 있었던 것처럼 스님은 영어 공부에 뛰어난 기량을 보였고 학과 톱을 유지했다.

"동국대 다닐 당시엔 몰랐어요. 스님이 그땐 많았거든요. 근데 영남대에 와서 보니 스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 '10年×10人×10來'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고정된 틀 안에 갇힌 불교, 변화가 필요”


MBC 〈세모방〉 프로그램에 소개된 주석 스님.


송정에 위치한 쿠무다 카페 전경.


‘스님도 백화점에 오나요?’ 란 질문에 문제를 느꼈다는 주석 스님은 문화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가 고정된 틀을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석 스님은?

법주사 수정암 승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 영어영문학과와 계명대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포교를 위해 함양 대운사를 불사하고 대운사 부산불교학당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했다. 이후 함양 대운사는 범어사 말사로 등록, 송정 바다 앞 쿠무다와 대운사를 열고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BTN불교TV ‘세상만사’ 및 BBS불교방송 ‘마음대로(大路)’ 를 진행 중이다.



‘주석 스님’ B1면에서 계속

“모범을 보여야한다 생각했어요. 스님이 공부를 못 해봐요. 학생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후에도 스님의 배움엔 끝이 없었다. 계명대 미대에 입학해 예술을 가까이 하고 이후 문화포교를 꿈꾸며 프랑스파리 에꼴 벨루에 꽁세이(ecole bellouet conseil)와 르노뜨로(ecole le notre)에서 제과제빵 과정을 수료했다. 방송 문화 포교를 위해 이선미 아나운서의 스피치랩(speechlab)에서 아나운서 멘토링 과정도 수료했다. 배움과 도전은 곧 시은(施恩)이었으며, 바르게 회향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불사로 회향, 부처님 일에 포기는 없어!

대학공부를 이어가며 스님은 김천 해은사 주지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함양에 절터가 있다는 소식에 도반들과 함께 찾아갔다.

“학교 공부를 하며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도반들과 찾아간 함양이 이후 대운사가 될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타 종단 스님이 운영하던 사찰이었는데 가보니 계곡도 있고 절터가 좋다고 생각됐어요. 계약을 했죠. 사실 고생문이 열린 거였어요. 도반들과 계약 후 앉아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노래 아시죠?(웃음) 터는 좋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를 위해 스님은 운문사 사리암을 찾아갔다. 힘든 시기마다 스님은 기도를 잊지 않았다. 시주자가 나타났고 무사히 계약도 마쳤다. 이후 부처님을 법당에 바르게 모시고 싶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주교 신자가 찾아왔어요. 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싱크대 위에 부처님이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는 말을 하더군요. 그 때 계약 후 불사가 진행되기 전이였지만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타 종교인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법당을 제대로 조성해 부처님을 바르게 모셔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스님은 즉시 불모(佛母)를 찾아 갔다. 은행나무로 삼존불을 모시고자 했다. 여력도 없었던 시기였지만 부처님 일이니 일단 부딪혔다. 3일 후 마산에서 시주를 위한 다른 인연이 나타났다.

“공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2009년에 극락전, 요사채, 삼성각 모두 1,000평에 이르는 불사를 마무리 하고 대운사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곤 스님은 곧장 함양 대운사를 범어사 말사로 등록했다. 공심과 대중을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는 원력이었다.

“함양 대운사를 불사하는 동안 사연도 많았어요. 주변 땅이 문중 소속인걸 알고는 더 놀랬죠. 땅을 사기 위해선 문중 어른들의 도장이 필요하더군요. 문중이 모이는 야유회도 찾아갔어요. 노력을 다 했죠. 불사를 마무리 하니 대중포교를 위해서 도심으로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범어사 말사로 등록하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주석 스님은 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미 해운대 달맞이에 대운사 부산불교학당을 열어 대중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때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원력을 세우고 문화포교에 뛰어든 것이다.

문화 포교의 아이콘, 쿠무다

쿠무다 앞 송정 바다는 서핑족들의 메카로 부상해 1년 내내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다. 2013년 12월 쿠무다 개원은 혁신이었다. 사람들에게 사찰은 산속에 있는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사찰이 바다 앞에 위치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 사찰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1층은 북 카페, 2층은 절 대웅사가 있었다. 북카페에는 세계 각국의 커피향이 흘렀고 디저트는 마카롱과 화려한 케이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매달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북 콘서트, 음악 연주로 채워졌다.

주석 스님은 “불교가 고정된 틀에 갇혀 있다”며 “현대에 발맞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화점을 갔을 때 7살쯤 된 아이가 ‘스님도 이런 곳에 오나요?’ 라며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에겐 누가 스님은 백화점을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사고의 세습은 고정된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불교를 집어넣고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참선 혹은 실참이란 단어로 현대인에 다가가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명상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열광을 하죠. 한국불교는 시대의 부름에 대답해야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인에게 다가가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옛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문화 속에 주석 스님의 행보를 ‘튀는 돌’ 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불교 패러다임이 됐다. 전국 사찰에는 북카페와 커피숍이 들어섰고, 이 공간은 전시회 등 예술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활용됐다. 더 젊어진 사찰 풍경에 많은 이들은 좋아했다.

“파리 거리에서 오래된 성당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음악들이 흘러나와요. 유학 시절 짧은 휴식을 주던 그 공간에서 불교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꾸었어요. 이젠 이 꿈도 어느 정도 이루고 있으니 이젠 학교입니다.”

문화대안학교를 열기 위해 구상 중이라는 스님의 말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심연(深淵)이 떠올랐다. 바다의 고요한 중심이 파도의 원동력이다. 부처님을 향한 스님의 곧은 중심, 그것은 사랑이었다.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도전의 원동력이었다.

부산=하성미 기자

해운대에 카페 ‘쿠무다’ 세우다

“종교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카페 형식의 복합문화공간 갖춰

문화로 불교와 자연스럽게 교감

현대인 마음치유 해법은 ‘문화’





‘쿠무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스님의 모습이 커피향 만큼 은은하게 다가왔다. 부산 송정에서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쿠무다 카페를 일군 스님은 문화포교의 아이콘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튀는 돌’ 부산 문화포교 큰 밭 일구다

테마人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

주석 스님 ‘불교계 연예인’

방송 포교 활동에도 ‘진력’

BTN불교TV ‘세상만사’ MC

BBS ‘마음대로’ 진행자 맡아

공중파서 ‘누님 스님’ 활약

불사·포교에도 큰 뜻 세워

2009년 함양 대운사 낙성

범어사 말사로 등록한 후

‘도심포교’ 원력에 해운대로

2013년 쿠무다 · 대운사 열어

파도가 철썩 거렸다. 가을의 문턱, 쌀쌀한 날씨에도 파도와 바닷바람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다시 파도로 눈길을 돌렸다. 저 바다 끝에서부터 세차게 달려와 모래와 닿자 부서진다. 그 물거품이 파도의 마지막이다. 하지만 또 다시 밀려온다. 반복해서 도전한다.

이러한 파도의 모습과 닮은 삶이 있다. 부산 송정 바다를 마주본 대운사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이다.

주석 스님은 불교계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BTN불교TV의 ‘세상만사’ MC 및 BBS불교방송의 ‘마음대로(大路)’의 DJ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세상만사’가 MBC 예능프로그램 ‘세모방’과 콜라보를 선보이며 공중파에도 진출해 ‘누님 스님’으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방송을 타서’ 유명해진 것만은 아니다. 주석 스님은 영어 ·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사찰 내 다실(茶室)이 아닌 대중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열고 각종 문화포교 활동에 앞장섰다.

주석 스님은 이 모든 활동을 ‘개혁’과 ‘도전’이란 단어로 설명했다. 고정된 틀을 깨고, 없던 것을 새로 하려하면 어쩔 수 없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 한다.

주석 스님의 개혁과 도전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한 것일까? 8월 24일 쿠무다 2층에 위치한 대운사에서 주석 스님을 만났다. 불자들과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은 스님은 가장 먼저 출가에 대한 얘기를 털어놨다. 첫 마디는 “멋모르고 출가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30년 동안 부처님은 말없는 미소로써 수많은 대답을 대신하며 주석 스님의 삶을 이끌었다.

“말씀은 없으신데 부처님께 나 자신을 비춰보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음 생에도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시 부처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차를 내려 주며 살짝 숙인 고개 아래, 입가엔 미소가 보였다. 부처님 미소처럼 평안과 행복을 닮았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던 스님은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다. 옅은 미소와 함께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음 생에도 부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며 말끝을 흐렸다.

말 없던 소녀, 제법무상을 받아들이다

1970년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던 기차 안에서 5살 작은 소녀는 멈추지 않고 울었다. 7시간 걸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담장 아래 개나리가 피어있었다. 샛노랗게 핀 개나리가 너무 밝아 야속했는지 소녀는 더 소리치고 울었다. 그래도 엄마에게 돌아갈 순 없었다. 부모의 이혼이 준 충격으로 소녀는 말문을 2년 동안 닫았다.

친할머니 집으로 내려온 후 부처님이 계신 절을 더 자주 찾아 갔다. 자신처럼 침묵하고 있는 부처님을 보며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처님과 마주보고 앉아 눈물을 삼키며 이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가장 말이 많은 그 시기, 안으로 생각이 잠기고 또 깊이 사유되길 반복하다 7살 소녀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직관력은 깊어지고 예민한 7살이 되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시기죠. 어려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나 봐요. 상처가 남았는지 그 때 그 개나리 색이 선명합니다. 지금도 개나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개나리 선물을 안 합니다.(웃음) 트라우마겠죠. 그러다 17살 때 동네에서 만난 첫 사랑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편지를 주고받고 버스타서 우연히 만나면 좋은, 그런 두근거림 있지요?”

하지만 그 황홀한 두근거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 첫사랑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죽음, 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세수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처럼 살더군요. 세상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때 더욱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고정불변은 없다는 것을요. 마음 아팠지만 그때는 별 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8살 때 출가 했습니다.”

도전은 곧 시은(施恩)!

주석 스님은 그 후 동학사승가대학에 입학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있길 편하게 여겼다. 하지만 승가대 축제 때 사회자의 공석으로 진행할 대타가 필요했다. 스님은 번쩍 손을 들고 나서야 “놀랐다”고 했다.

“사회가 공석이라 필요하다는 말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죠.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사히 축제를 진행한 것 같아요. 당시 일연 스님이 주지이셨는데 BBS불교방송 개국할 때 추천해주셔서 오디오 테스트를 봤어요. 하지만 그 때 당시는 공부가 더 하고 싶어 거절했죠.”

스님은 그 후 동학사승가대 졸업을 앞두고 기도를 선택했다.

“졸업을 앞두고 대부분의 스님들도 진로를 고민합니다. 선방과 학교, 그리고 기도로 나뉘죠. 1995년도 말쯤 천일기도에 입재했습니다. 다라니를 천독하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가 될 때까지 기도만 하는 삶이었죠. 그렇게 3년 정도 하니 장애가 나타나더군요. 이유 없이 슬퍼지고 웃고 짜증도 내고 밉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지만 꿈을 꾸는 날엔 더 신기했어요. 꿈에 내일 누가 오는지 미리 알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생기더군요. 그 때 〈능엄경〉에서 봤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십변마장(五十辨魔障)인데 그 모든 현상이 마장임을 알았죠. 경전의 말씀으로 내 경계를 정확히 알자 모두 사라지더군요.”

천일기도 후 스님은 공부할 것을 결심하고 동국대 선학과를 입학했다. 대학시험을 두 달 앞두고 준비에 돌입했지만,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합격했다. 01학번으로 새 학기를 맞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마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부의 중요성을 안거죠. 그리고 승가대 다닐 당시부터 출가자 입장에서 뿐 아니라 학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동국대 불교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우연히 한국불교 간화선을 소개한 번역 사이트를 봤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았어요. 문맥만 맞춰 놓은 영어 번역을 보고 실력을 닦아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추후에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바른길을 제시하고 싶었죠.”

그래서 스님은 불교학과 졸업 후 영남대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다. 마치 전생에 배운 바가 있었던 것처럼 스님은 영어 공부에 뛰어난 기량을 보였고 학과 톱을 유지했다.

“동국대 다닐 당시엔 몰랐어요. 스님이 그땐 많았거든요. 근데 영남대에 와서 보니 스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 ‘10年×10人×10來’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고정된 틀 안에 갇힌 불교, 변화가 필요”


MBC 〈세모방〉 프로그램에 소개된 주석 스님.


송정에 위치한 쿠무다 카페 전경.


‘스님도 백화점에 오나요?’ 란 질문에 문제를 느꼈다는 주석 스님은 문화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가 고정된 틀을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석 스님은?

법주사 수정암 승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 영어영문학과와 계명대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포교를 위해 함양 대운사를 불사하고 대운사 부산불교학당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했다. 이후 함양 대운사는 범어사 말사로 등록, 송정 바다 앞 쿠무다와 대운사를 열고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BTN불교TV ‘세상만사’ 및 BBS불교방송 ‘마음대로(大路)’ 를 진행 중이다.



‘주석 스님’ B1면에서 계속

“모범을 보여야한다 생각했어요. 스님이 공부를 못 해봐요. 학생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후에도 스님의 배움엔 끝이 없었다. 계명대 미대에 입학해 예술을 가까이 하고 이후 문화포교를 꿈꾸며 프랑스파리 에꼴 벨루에 꽁세이(ecole bellouet conseil)와 르노뜨로(ecole le notre)에서 제과제빵 과정을 수료했다. 방송 문화 포교를 위해 이선미 아나운서의 스피치랩(speechlab)에서 아나운서 멘토링 과정도 수료했다. 배움과 도전은 곧 시은(施恩)이었으며, 바르게 회향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불사로 회향, 부처님 일에 포기는 없어!

대학공부를 이어가며 스님은 김천 해은사 주지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함양에 절터가 있다는 소식에 도반들과 함께 찾아갔다.

“학교 공부를 하며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도반들과 찾아간 함양이 이후 대운사가 될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타 종단 스님이 운영하던 사찰이었는데 가보니 계곡도 있고 절터가 좋다고 생각됐어요. 계약을 했죠. 사실 고생문이 열린 거였어요. 도반들과 계약 후 앉아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노래 아시죠?(웃음) 터는 좋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를 위해 스님은 운문사 사리암을 찾아갔다. 힘든 시기마다 스님은 기도를 잊지 않았다. 시주자가 나타났고 무사히 계약도 마쳤다. 이후 부처님을 법당에 바르게 모시고 싶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주교 신자가 찾아왔어요. 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싱크대 위에 부처님이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는 말을 하더군요. 그 때 계약 후 불사가 진행되기 전이였지만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타 종교인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법당을 제대로 조성해 부처님을 바르게 모셔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스님은 즉시 불모(佛母)를 찾아 갔다. 은행나무로 삼존불을 모시고자 했다. 여력도 없었던 시기였지만 부처님 일이니 일단 부딪혔다. 3일 후 마산에서 시주를 위한 다른 인연이 나타났다.

“공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2009년에 극락전, 요사채, 삼성각 모두 1,000평에 이르는 불사를 마무리 하고 대운사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곤 스님은 곧장 함양 대운사를 범어사 말사로 등록했다. 공심과 대중을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는 원력이었다.

“함양 대운사를 불사하는 동안 사연도 많았어요. 주변 땅이 문중 소속인걸 알고는 더 놀랬죠. 땅을 사기 위해선 문중 어른들의 도장이 필요하더군요. 문중이 모이는 야유회도 찾아갔어요. 노력을 다 했죠. 불사를 마무리 하니 대중포교를 위해서 도심으로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범어사 말사로 등록하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주석 스님은 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미 해운대 달맞이에 대운사 부산불교학당을 열어 대중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때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원력을 세우고 문화포교에 뛰어든 것이다.

문화 포교의 아이콘, 쿠무다

쿠무다 앞 송정 바다는 서핑족들의 메카로 부상해 1년 내내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다. 2013년 12월 쿠무다 개원은 혁신이었다. 사람들에게 사찰은 산속에 있는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사찰이 바다 앞에 위치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 사찰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1층은 북 카페, 2층은 절 대웅사가 있었다. 북카페에는 세계 각국의 커피향이 흘렀고 디저트는 마카롱과 화려한 케이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매달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북 콘서트, 음악 연주로 채워졌다.

주석 스님은 “불교가 고정된 틀에 갇혀 있다”며 “현대에 발맞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화점을 갔을 때 7살쯤 된 아이가 ‘스님도 이런 곳에 오나요?’ 라며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에겐 누가 스님은 백화점을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사고의 세습은 고정된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불교를 집어넣고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참선 혹은 실참이란 단어로 현대인에 다가가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명상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열광을 하죠. 한국불교는 시대의 부름에 대답해야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인에게 다가가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옛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문화 속에 주석 스님의 행보를 ‘튀는 돌’ 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불교 패러다임이 됐다. 전국 사찰에는 북카페와 커피숍이 들어섰고, 이 공간은 전시회 등 예술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활용됐다. 더 젊어진 사찰 풍경에 많은 이들은 좋아했다.

“파리 거리에서 오래된 성당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음악들이 흘러나와요. 유학 시절 짧은 휴식을 주던 그 공간에서 불교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꾸었어요. 이젠 이 꿈도 어느 정도 이루고 있으니 이젠 학교입니다.”

문화대안학교를 열기 위해 구상 중이라는 스님의 말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심연(深淵)이 떠올랐다. 바다의 고요한 중심이 파도의 원동력이다. 부처님을 향한 스님의 곧은 중심, 그것은 사랑이었다.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도전의 원동력이었다.

부산=하성미 기자

해운대에 카페 ‘쿠무다’ 세우다

“종교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카페 형식의 복합문화공간 갖춰

문화로 불교와 자연스럽게 교감

현대인 마음치유 해법은 ‘문화’



108배 하는 곳, 행복 고이는 자리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⑱ 지리산 한 스님의 지혜



그림 · 박구원

무사찰주의자의 행복컨설팅

지난 해 초겨울, 유방암수술로 입원한 선배 한 분을 문병했다. 워낙 매사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세상을 사는 분이라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지만 큰 수술을 받고 나서인지 수척한 모습에 조금은 걱정이 있어보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108배를 좀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했더니, 관심을 보였다. 절수행을 해서 병을 치유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자 반색을 하며 꼭 해보겠다고 했다. 문병을 끝내고 나올 무렵, 병실 창가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인생을 낭비한 죄〉, 스무 분 남짓의 수행자분들에게 인생을 물었던 나의 책이었다. 수술을 하기 전 입원해 있으면서 한 번을 읽고, 수술하고 나와서 몸을 회복하는 동안 다시 한 번 읽었는데, 스님들의 말씀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책에 나오는 스님 한 분을 꼭 뵙고 싶으니 안내를 좀 하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일상생활을 최대한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시공간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에 머무는 것이라고 설파하셨던 도현 스님이 그 주인공.

꼭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한지 일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배는 2차 항암치료까지 끝내면서 꿋꿋하게 병을 이겨냈다. 그리고 지난 주 초, 드디어 도현스님을 뵈러 지리산으로 떠났다. 도반 10여 명과 함께였다.

올해 예순 여덟이신 도현 스님은 22년째 지리산 쌍계사에서 차로 15분쯤 거리에 있는 의신마을 산꼭대기 토굴에 사신다. 네 해 전 토굴에 불이 나서 한 평 더 늘려 지었더니 지난 번 세 평 토굴에 견주면 대궐 같다며 우리 일행을 토굴 안으로 안내하셨다. 정말 대궐은 대궐이었다. 열 세 명이 방과 마루에 나눠 앉았는데 좁다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았으니 말이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과 새들의 지저귐까지 더하니 어느 궁궐 부럽지 않았다. 언제 와 봐도 '텅 빈 충만' 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곳이다.

무사찰주의자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 홀로 살다보니, 사람들이 와보고는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느냐' 고 묻는다고 한다. 그러면 스님이 대답하신다.

"나는 해인사 장경각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도매로 받아와서 여기서 소매로 팝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스승께 받은 지적 재산을 나누어주며 산다는 뜻이다. 이자 없는 무상대출의 행복컨설팅인 셈이다. 그러나 세상 사는 이치가 공짜가 없는 법, 시기가 조금씩 다를 뿐 나중에 이자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님에게 가장 큰 이자는 각자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이자를 치르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그런데 스님은 여기서 혼자 무얼 하고 살지요?"

스님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 때로 사람들이 와서 시주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게 그것이다. 우리 일행에게도 들려준 기도의 내용이 참, 아름답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듯 시주자가 원하는 바 모두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아름답게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소서."

신도들은 물질적인 것을 보시하고 스님은 그 보시에 대한 답을 법(기도)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다. 부처님시대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님께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두 가지를 묻는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그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동식저장장치, 즉 USB이다"라는 것이다.

삶의 한 순간 한 순간, 아름다운 것들이 저장되어야 내일 당장, 혹은 다음 생에라도 아름다운 내용들이 풀려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매순간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것들에 철저히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오는 이들의 전공을 묻는 것이다. 도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못하는 기술을 배우고,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겐 자신이 보지 못하는 색을 보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스승이다. 몸살이라도 나서 병원에 가면 젊은 의사라도 그가 선생님이다. 거기에서 또 영원한 선생도 제자도 없음을 배운다.

또 토굴에 살면서 안팎으로 도량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 수행이고 무슨 일을 하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수시로 깨우치는데, 찾아오는 이들과 이런 느낌을 나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 속에서도 큰 기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술과 정보가 필요한 한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선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용히 설거지만 해도 차분해지니까요. 화두를 들고 염불을 하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고 또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입력시켜놓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한 다양한 지혜들을 이동식저장장치에 입력시켜놓아야 필요할 때 찾아 쓸 것 아니겠어요? 본 바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 본 바를 잘 입력시켜놓았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참선과 절수행 균형이 중요
사심과 공경의 마음 솟아나
마음 수행이 곧 복짓는 행위

지리산 네 평 토굴에 사시는 도현 스님의 108배

"늘 자연스럽게 호흡을 주시하라"는 것을 가풍으로 삼아 찾아오는 이들에게 호흡을 통한 수행법을 전해주고 선정과 지혜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스님께 108배를 통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는가 여쭤보았다.

"108배 속에서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지요. 요즘 날마다 108배를 하고 있는데, 절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합니다. 땀을 쭉 흘리며 이삼십 분쯤 절을 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고, 오늘 일과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홀가분해집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엔 포행을 할 수가 없어 이 작은 공간에서 걸으려면 갑갑해지거든요. 그럴 때 108배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되죠. 그런 날은 운동 삼아서 두 번도 해요.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스럽게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죠. 무엇 하나를 뭔가를 오래오래 하면 친숙해지고 그 친숙한 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되어버려요. 생각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에게 주지시키는가가 중요해요."

스님의 108배 예찬이 이어졌다.

"토굴에 오는 사람들에게 108배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거든요. 108배를 하면 운동이 되어서 소화도 잘되고 건강에 좋고 지구력이 생겨요. 그 다음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생깁니다. 또 하심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행들이 하나둘 묻기 시작했다.

"저는 참선을 하고 있는데 절 수행을 해야 할까요?"

"참선은 정적이고 절은 동적인 수행인데,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해요. 정적인 공부만 하는 것은 샘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아요. 참선을 하는 사람이 절을 하는 것은 옹달샘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장치를 해두는 것과 같아요. 안거 때 좌선만 열 시간씩 하게 되면 하체가 많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의욕이 없어져요. 절을 하면 하체가 약해지는 걸 보완할 수 있죠. 절은 하면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인물도 예뻐져요."

"그런데 왜 절을 하면 복이 생기죠?"

"절을 할 때 두툼한 방석을 깔고 하면 무릎이 닿는 자리가 푹 패이잖아요? 그 자리가 복이 고이는 자리예요. 복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사람에게 온갖 복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절을 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인데, 마음을 굴복시키다보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은 데 둔 것이고 그 낮은 자리에 복이 고이는 거지요."

역시 복이 좋긴 한가보다. 스님께서 복 얘기를 하시니 모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다. 우리 일행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분이 확인 차 여쭈었다. 올해 여든 살이신 이 분은 그날 우리 일행 중 가장 잘 걷고 활기찼다.

"저도 아침마다 108배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려고 새벽 세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왔어요. 제 방석도 항상 푹 들어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거지요?"

"복은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절은 시간에 쫓겨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이거 오늘 안하면 안된다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부담스러워지고, 108배 한테 자기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일년에 단 한번만이라도 간절하게 절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간절 절자 하나만 있어도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절을 하는 자체가 복을 누리는 거라는 스님의 말씀에 백번 동감한다. 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수술을 하고 난 선배도 내 권고를 듣고 나서 108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며칠 만에 중단하고 말았다.

발이 바닥에 닿으면 마치 칼날을 밟는 듯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는 데 큰 장애가 없을 때 절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넘어져 팔이나 다리라도 다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내 경우 몇 년 전에 새끼발가락에 금이 가서 6개월 동안 절을 하지 못했다.

돌아와 녹음한 스님의 말씀을 요즘 108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딸에게 들려주었더니,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출근하는 남편의 방석을 사진찍어 가족카톡방에 올리고는 이렇게 썼다. "아빠, 절 할 때 저 무릎 패이는 자리가 복이 고이는 자리래요. 스님 법문 듣는데 아빠 방석 패인 거 생각나서." "그래, 고맙다. 우리 모두 매사에 열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스님을 뵙고 난 다음날 새벽, 쌍계사 법당에서 도반들과 함께 한 108배. 그냥 그대로 행복을 누린 자리였다.

지수화풍 지장보살

회향선원 주지 스님은 불사를 결심하고 도량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의증을 내던중 지장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다. 이후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를 세번 마치니 다시 지장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천일기도 3번이 끝나면 만불자에게 나를 내놓아라. 병고액난자가 내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주리라. 내가 지수화풍 지장보살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회향선원에
오셔서 지수화풍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시고
기도하시어 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성일 합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봉현리 산 44-1)
010-3771-7575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9.6~2017.9.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인간불교’ …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

인간불교,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

성운 대사 지음 | 조은자 옮김
운주사 펴냄 | 2만 2천원



이 책을 읽다보면 불교가 지금 나와 이웃의 구체적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불교가 사회에서 지녀야 할 역할과 지향할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즈음, 이 책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방향성 숙고를 위한 참고서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이들 종교는 나름의 교리체계와 문화를 지녔다. 불교 역시 기독교, 이슬람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서 역사 속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원시불교 부파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오늘날 세계에도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의 불교들이 있다. 여기에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인간불교라는 모습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불교는 과연 어떤 불교일까?

‘인간불교’라는 말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 나아가 종교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바로 불교는 인간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대만의 성운대사가 한평생 설하고 실천해온 인간불교의 총체적인 모습을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에 의거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것이다. 즉 불교의 발생과 교리, 발전해온 역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불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는 결국 인간을 위한 종교, 즉 인간불교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간불교가



대만의 성운 대사

저자가 평생 실천한 인간불교 소개
현대적 인간불교의 의미 설명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문에서는 인간불교에 대한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 그리고 저자의 삶과 체험을 통해 불교는 곧 인간불교이며, 이것이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本懷)이라는 것을 밝힌다.

제 1장 ‘총설’에서는, 불교는 인간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므로 당연히 불교가 곧 인간불교이지만, 특별히 ‘인간’이란 두 글자를 강조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불교는 가정윤리 중시, 조화로운 사회 건설, 융성하고 평안한 국가 건설, 자비와 지혜로 인간을 교화하는 보살의 불교임을 말한다. 제 2장 ‘부처님의 인간생활’에서는 인간 싯다르타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임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싯다르타의 출가와 구법, 깨달음을 이룬 뒤 교단을 설립한 일, 부처님의 하루 생활, 제자를 교화하는 모습,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보시 등이 포함돼 있다.

제 3장 ‘인간불교의 근본교의’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의인 삼법인, 사성제, 십이인연, 그리고 고와 공, 무상과 무아 등의 근본교리를 해설하면서, 이들이 모두 부처님이 중생을 환희와 광명, 해탈된 자유로운 인생을 맞도록 인도하기 위해 설한 진리라고 설명한다.

제 4장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의 발전’에서는 불교가 중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는데, 교육과 복지, 문학과 예술 등에 불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중국에서 불교가 몰락하게 된 원인들을 지적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제 5장 ‘현대 인간불교의 발전’에서는 중국 근현대사서 불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던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거울로 삼아 나온 인간불교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문화, 교육, 포교, 자선 등을 통해 불교계 내부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혔다. 제 6장은 ‘총결’ 부분으로, 인간불교는 그간의 전통적인 출세간 중심, 승려 중심, 사찰 중심에서 과감히 벗어나 출세간의 정신으로 입세간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것이며, 현대인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인간정토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불교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인간 불교’지만, 실상은, 불교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를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철학으로 여긴다든가, 아니면 힘들 때 복을 비는 기복적인 민간신앙 같은 것쯤으로 여기는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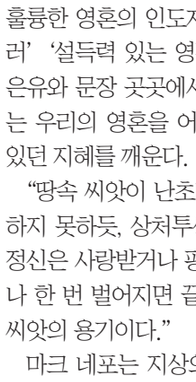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불교가 관념적, 비현실적 종교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현대적이며 인간적인 종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다보면 불교가 지금 나와 이웃의 구체적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불교가 사회에서 지녀야 할 역할과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즈음, 이 책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방향성 숙고를 위한 참고서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들음은 모든 것과 소통하는 삶의 동반자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

마크 네포 지음 | 박윤정 옮김 | 흐름출판 펴냄 | 1만 5천원



뉴욕타임스가 꼽은 베스트셀러 저자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의 마크 네포가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로 돌아왔다. 전작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에서 암 투병의 깨달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듣지 못하는 고통을 견뎌내고, 더욱 깊은 들음의 경지로 이르게 된 삶의 축복과 의미들을 펼쳐 보인다.

시인의 사유와 영혼의 사유를 응집한 궁극의 명상서이자 삶의 지침서인 이 책은 우리 너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생기 있는 영혼으로 지상에 머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준다. 마크 네포는 “호흡이 폐에 활력을 불어넣듯 들음은 마음에 생기를 더해준다. 멈추어 듣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들음은 모든 것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것과 대화를 나누게 하는 삶의 동반자이다.”라고 말한다. 암 투병을 이겨낸 그는 서서히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을 견뎌내고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들음임을 일깨워준다.

저자 마크 네포는 뉴욕타임스가 꼽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이며, 철학자, 영혼의 테라피스트다. 그는 인간 여정의 지속적인 탐험을 통해 ‘우리 시대에 가장 훌륭한 영혼의 인도자 가운데 한 명’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득력 있는 영적 스승’으로 불린다. 그의 시적인 은유와 문장 곳곳에서 드러나는 잔잔한 파도 같은 문체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짐과 동시에 심연에서 잠자고 있던 지혜를 깨운다.

“땅속 씨앗이 난초나 히아신스로 피어난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듯, 상처투성이 마음이나 절망에 휩싸여 있는 정신은 사랑받거나 평화로운 자신을 그릴 수 없다. 그러나 한 번 벌어지면 끝까지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씨앗의 용기이다.”

마크 네포는 지상의 존재로서 영혼의 소명에 가닿을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숨 쉬고 있는 씨앗을 끄집어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불안한 인간의 여정에서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조차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해준다. 삶의 덧없음과 변화무쌍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혜안이 그의 글 곳곳에 놓여 있다.

“우리는 매일 길모퉁이에서 온갖 모습으로 위장한 천사들을 만난다. 이 천사들은 노랫소리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른다. 옳거나 틀린 길은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슴뿐이다. 물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슴을 열고 모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믿을 만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고요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SEVEN THOUSAND WAYS TO LISTEN〉이지만 들음에 대한 수학적 방법이나 시크릿은 없다. 그저 끝없는 들음과 종국의 고요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나 들음의 의미를 각자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확장시키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진실을 언제나 내 앞에 두는 길’ 혹은 ‘받아들임의 방법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들’ 같은 것이다. 또 이 책은 이렇게 근원에 소리에 귀 기울였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는다. 청각 장애가 선물한 지고의 침묵의 귀 기울였던 베토벤, 상대성의 속삭임이 들릴 때까지 물체를 계속 움직여보았던 아인슈타인이 그 예다. 결코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들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현존의 들음을 담아냈다.

“깊은 들음을 갈고닦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순간 속에 있든 그 순간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도록 자신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언제나 존재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곳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우리 존재의 토양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오랜 호우 뒤에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 책은 ‘1장 존재의 작업, 2장 인간됨의 작업, 3장 사랑의 작업’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존재의 작업에서는 우리들보다 큰 존재와의 우정을 탐구한다. 한편 2장 인간됨의 작업에서는 경험과의 우정을 통해 삶에 필요한 지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3장 사랑의 작업에서는 타인들과의 우정을 통해 보살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세가지 우정(존재와의 우정, 경험과의 우정, 타인들과의 우정)은 이 책이 탐구하고 있는 수많은 들음과 삶의 여정을 잡아주는 틀이 된다.

“심연의 바닥을 훑고 나가게 파도가 우리를 후려치듯 고통과 두려움이 내 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러나 탁 트인 하늘 아래 한 알의 모래 알갱이처럼 서 있자 두려움은 힘을 얻을 자리를 잃었다. 태양의 달램으로 구름이 하얀 배를 드러냈다. 나는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다. 파란 하늘 아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들판의 풀들이 이리저리 일렁였다. 태양이 작게 고동쳤다. 나도 작게 고동쳤다. 쓰러진 나무 밑에서 꺾여 있던 빛이 내가 찾던 진실처럼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영혼의 소명과 영혼의 부름에 응하는 들음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만한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삶, 암 투병자로서의 삶, 청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낸 사람으로서의 깊은 사유와 생에 대한 회고, 일상 순간에 대한 의미와 찬사까지 이 책은 어느 한 곳 눈 뗄 데 없이 넓고 그윽하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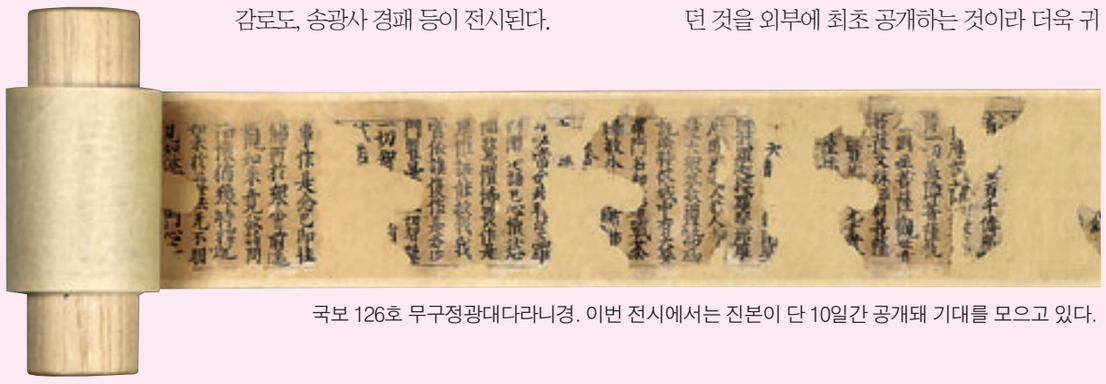


내로라하는 성보문화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총출동'

개관 10주년 특별전 '10年×10人×10來'

'상원사 사불회도' '청룡사 감로도' '송광사 경패' '천은사 금동불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름만 들어도 위용이 느껴지는 이 불교문화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비밀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의 10년 역사 속에 숨어있다. 바로 불교중앙박물관의 역대 특별전 및 테마전에서 전시된 이력을 보유한 것. 단 1점이라도 직접 보기 어려운 성보들이 불교중앙박물관 10주년을 기념해 '다시 보고 싶은 성보'란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국보 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번 전시에서는 진본이 단 10일간 공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 13일 개막식, 11월 26일까지
국보 등 성보 총 78건 209점 전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진본 공개돼
18C 화파 이끈 의균·의겸 작품도

불교중앙박물관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10年×10人×10來'를 9월 14일~11월 26일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짚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국보 1건, 보물 22건, 중요민속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24건을 포함한 성보문화재 총 78건 209점이 전시된다. 이처럼 다수의 보물급 성보문화재가 총출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테마는 총 3가지 '10年' '10人' '10來'로 나뉜다.

그동안 전시에서 '상원사 사불회도' '청룡사 감로도' 등을 친견할 기회를 놓쳤다면 제2전시실의 '10年'을 찾아가보자. 불교중앙박물관을 거친 숱한 불교문화재 중 관람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성보 중의 성보(聖寶)'를 모았다. 2007년 개관 특별전 '佛'에서 전시된 보물 제1326호 상원사 사불회도(1562년, 국립중앙박물관)를 시작으로 설송당 연초 진영, 청룡사 감로도, 송광사 경패 등이 전시된다.

특히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진본은 개막일부터 22일까지 단 10일간만 공개돼 눈길을 끈다. 그 외 기간에는 영인본이 전시된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찬란하게 빛낸 불교미술의 장인(匠人)들의 작품들은 제1전시실 '10人'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조선부터 근대까지 긴 세월 동안 불교미술의 화업(畵業)을 이어온 장인 10인을 선정, 이들의 대표적 작품을 선보인다.

장인 10인에는 18세기 팔공산 화파와 호남 조계산문 화파를 이끈 양대산맥 의균·의겸 스님, 사불산 화파의 수화사 신겸 스님, 현대 불화의 맥 약효 스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조각가 양지 스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선 후기 화파 형성의 선두에 선 현진 스님의 '천은사 목조보살상'(보물 1889호)과 팔영산 능가사의 수화사 색난 스님의 '천은사 아난가섭상'은 그동안 사찰에 비장(備藏)됐던 것을 외부에 최초 공개하는 것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제3전시실의 '10來'에는 현재 진행형 문화유산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앞으로 더욱 조명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들을 모았다. 인각사 공양구, 무량사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용문사 지장보살좌상, 흥천리사지 '당조장대장경이지함' 명비편 등이다. 특히 무량사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은 발견 후 도난당했던 것을 최근 되찾아 삼존불의 모습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은 9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10주년 기념전을 통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발전적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면서 "성보 중에서도 명작·명품으로 평가되는 문화재가 한 자리에 모인 기회로, 성보문화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은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및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보물 1326호 상원사 사불회도. 1562년.



무량사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선전기.



보물 1889호 천은사 목조보살상. 1614년.

금니사경과 변상도, 그 유려함에 빠지다

한국문화재재단, 금운 김경미 작가 초대전



금운 김경미 作. 묘법연화경변상도 권 제7.

금운 김경미 작가의 2017 한국문화재재단 초대 작가전 '금니사경·사경변상도 기획전-佛, 금빛 세계로'가 9월 16일~10월 1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개최된다.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향수)은 전통공예 및 미술 기반의 창의적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작가를 선정해 1년에 3차례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초대전은 고려시대 유려한 예술을 이뤘던 고려시대 전통사경 및 사경변상도의 문화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금니사경(권자본·절첩본·선장본), 창작사경 등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닥나무 원료를 쪽 염료로 선염해 제작한 전통감지에 금니로 쓴 사경 및 사경변상도의 작품과 옻칠종이에 금니로 쓴 사경작품 등 희귀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감지금니묘법연화경변상도를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권자본), 금강반야바라밀경(권자본), 지장경(선장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절첩본), 문수사리문보리경(권자본), 불설아미타경(절첩본), 관세음보살보문품(권자본) 등 전통사경기법으로 제작된 작품들도 소개된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사경은 찬란했던 예술이자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금·은자 전통사경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경미 작가의 사경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특별한 세상 '別有天地' 속으로…

〈별유천지〉

로터스갤러리, 김단비 청년신인작가 展

2017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김단비 작가의 전시 '별유천지(別有天地) 두 번째 이야기'가 9월 1일 개막했다.

김단비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전공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선대학교 병원 및 광주시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60여 단체전 및 1회 개인전을 연 바 있다.

'별유천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의 회화작품 20점이 전시된다. '별유천지'는 별세계, 즉 속세와는 다른 이 세상 밖의 이상적인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김 작가는 "내 작업은 마블링 기법을 통한 다채로운 색채 속에서 나타나는 우연적 형상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면서 "이를 표현하는 주요 모티브는 우리의 옛 그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는 본인의 주관적 시선에서 산수를 재해석하고 구현하는 것은 내 정체성을 찾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별유천지, 100cm, 광목에 혼합재료.

작가의 이러한 상상 속에 존재하던 시공을 초월한 풍경들은 화폭의 '별유천지'로 재현됐다. 밤하늘, 뭉게구름, 물결 등 일상 속 자연의 모습이 마블링 기법과 산수 표현을 통해 마치 다른 세계의 모습처럼 환상적으로 표현된 것.

김단비 작가의 전시는 9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박아름 기자

사진에 반한 그들이 전하는 세상

한국환경사진연구소, '사진에 반하다' 展

최용백 사진작가의 작품 '깨달음의 미소 망월사'가 기획전 '사진에 반하다'에 출품된다.

한국환경사진연구소와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는 '사진에 반하다' 展을 9월 12~15일 겸재정선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용백 작가를 비롯해 5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최용백 작가 및 김노천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장이 공동 기획하고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아트플랫폼이 후원한다.

참여 작가들은 대학시절부터 사진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진 공부에 뛰어들어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전국 곳곳을 발로 뛰어다니며 단 하나뿐인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카메라를 통해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재탄생시킨 이들의 작품들은 대상을 직접 보지 못한 관람객들에게도 생동감을 고스란히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아름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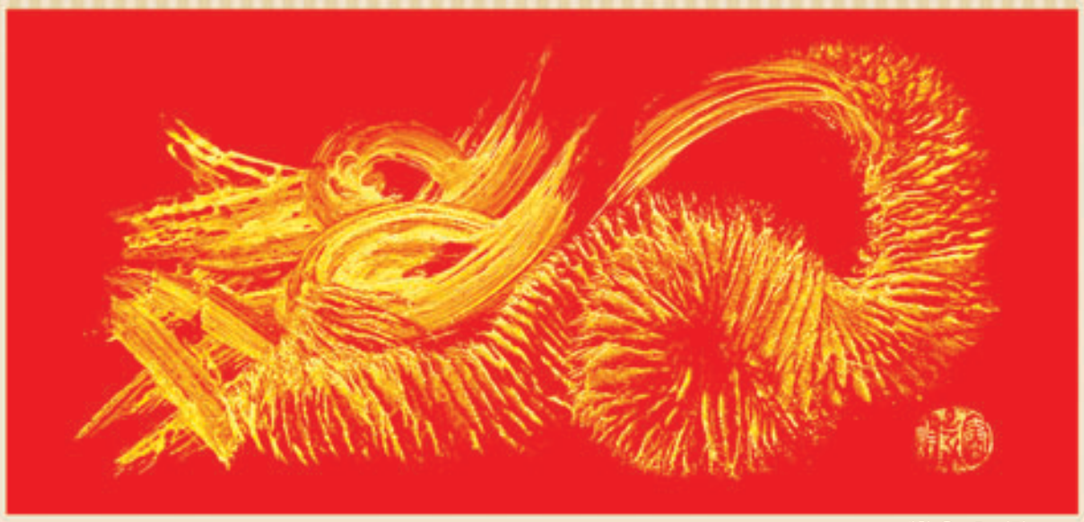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달마도를 능가하는 신통방통大통 호신용
용·호 선경도 출현하다



태황 용·호 선경도

용은 하늘의 제왕, 호랑이는 지상의 제왕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용도 되고 호랑이도 되는 세계 유일의 작품입니다.
용·호 선경도가 스님의 기도중에 현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용·호 선경도의 위신력(威神力)이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소장하는 것 만으로도 기운이 달라 지고 액운을 막아주며 소원성취가 될 것입니다. 건강성취·합격성취·사업성취·가내평안·집안우환·병고로 고통 받는분, 신통방통大통 될 것입니다.

태황 용·호 선경도	크 기
핸드폰, 자동차 부착용(3D)	
사무실, 거실 등 액자용 (大)	550㎜ × 360㎜
책상, 침실 등 액자용 (小)	460㎜ × 295 ㎜

※본 작품은 작가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시 법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세계 40여개국 저작권이 있습니다. Copyright©2017 Tae Hwang All rights reserved

학업성취·사업번창·병고액난 소멸·가정화평·좋은인연·결혼성취 등

•구입문의 : 법향선원 031-886-1179 / 050-2879-8709
•입금계좌 : 농협 301-0184-2624-71

“山水엔 득실 없다”… 禪의 정원이 주는 가르침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⑰ 덴류지(天龍寺)



덴류지서 만날 수 있는 정원의 모습. 연못 소겐치(曹源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덴류지 정원은 일본 정원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 이를 만든 무소국사는 정원을 통해 선을 표현하려 했다.

지금까지 간사이 지방의 명찰을 소개하면서 교토 서쪽에 위치하는 ‘아라시야마’(嵐山)라는 지명이 몇 번 등장했었다. 3월 하순에는 간사이 지방에서 꽃으로 유명한 사찰 여섯 곳을 소개했을 때도 아라시야마 명찰 덴류지를 그 가운데 하나로 뽑았었다. 하지만 그때는 꽃과 관련된 간단한 소개만 했을 뿐이었다. 드디어 덴류지 창건과 경내답사, 주변볼거리 답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할 차례가 돌아왔다.

사가노 · 아라시야마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고대에 도래인 하타 씨(秦氏)에 의하여 개척된 곳이라고 전한다. 경치가 아름다운 이 지역은 헤이안쿄 천도이후 천황가의 이궁(離宮)과 귀족의 별장이 지어진 지역이 되었다. 푸른 산, 맑은 강물, 신비로운 죽림, 그리고 신선한 공기. 교토시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있지만 찾아 가기가 어렵지 않은 위치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은 교토의 큰 매력이다. 자연환경도 좋고 사찰도 많아서 사가노 · 아라시야마는 짧은 시간에 둘러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가운데 내가 자주 방문하는 곳, 역시 덴류지다.

임제종 덴류지파 대본산 덴류지는 1339년에 나라 · 요시노에서 억울하게 죽은 고다이고 천황(後醍醐, 1288~1339)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시카가 다카우지 장군(足利尊氏, 1305~1358) 이 무소국사(夢窓國師, 1275~1351)를 개산조사로 창건한 것이다.

12세기 후반에 무가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가 되었지만 천황은 폐위시키지 않았다. 친정(親政)을 노렸던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두 번 실패했다. 그래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아시카가 다카우지 등의 도움을 받아서 1333년에 막부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듬해 연호를 겐무(建武)로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여 ‘겐무의 신정(新政)’을 시작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추진한 이 정책이 무리가 따라서인지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이반하여 교토에서 고묘(光明)천황을 등위시키고, 1338년에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이 되어 새로운 막부를 열었다. 막부는 교토의 무로마치(室町)에 있었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불렸다. 1336년에 요시노로 내려간 고다이고 천황이 남조를 수립하고 황위의 정통성을 주장했으나 1339년에 세상을 떠났다.

덴류지 자리에는 원래 헤이안 초기에 사가천황의 왕비가 개창한 단린지(檀林寺)가 있었고, 13세기에 들어 이궁 가메야마전(龜山殿)이 세워졌다. 고다이고 천황은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지냈다. 천황의 큰 신임을 받고, 또 장군들에게서 존경을 받은 무소 국사는 아시카가 장군에게 고다이고 천황의 명복을 빌기 위한 선종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건의했다. 그의 건의는 장군을 통해서 조정에 전해져, 조정에서 새로운 사찰 건립의 허가를 받고



덴류지 대방장 앞 법당 천장에 그려진 운룡도. 현대 일본화 거장인 가야마마타조가 1997년 그렸다.

임제종 덴류지파 본산으로 유명
천황 명복위해 무소국사가 개산
연못 중심한 정원, 禪美를 담아
日 특유 정원문화에 지대한 영향

고다이고 천황과 유래가 있는 곳에 사찰이 건립되었다. 사찰 정식 명칭이 ‘영구산(靈龜山) 역응자성 선사(歷應資聖禪寺)’였다. ‘역응’이 연호인데 천황의 허가가 있어야 사찰 건립 당시의 연호가 사찰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찰의 격이 아주 높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엔랴쿠지를 비롯한 연호가 사찰이름이 된 기존의 사찰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연호를 빼고 사찰 이름이 레이키잔덴류시세젠지(靈龜山天龍資聖禪寺)로 바뀌었다.

그런데 거대한 선종사찰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다이묘(大名, 일본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렸던 영주들)의 장원 기부금으로는 도저히 마련 할 수 없었다. 무소국사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나라에 독자적으로 무역선을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

마침내 막부의 허가를 받아서 ‘덴류지선’(天龍寺船)이 파견되었다.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상인이 선장이 된 이 무역선으로 인해 백배(百倍)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찰건립이나 수리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파견된 무역선이 덴류지선(天龍寺船) 이전에는 가마쿠라의 겐초지선(建長寺船)등 전례가 있다. 당시 무역선에는 선승들이 타고 일본과 원나라를 왕래했으며 이는 일본의 선종 보급에 영향을 주었다.

덴류지 칠당 가람이 완성되자, 1345년 무소국사를 도사(導師)로 한 개당(開堂)법회가 열렸다. 1386년엔 덴류지는 교토오산(京都五山)의 1위가 되었다. 교토오산이란 지난번에 도후쿠지를 소개했을 때 설명했듯이 중국의 오산제도에 의하여 선정된 임제종 5대사찰이다. 1위는 난젠지(南禪寺), 역시 난젠지는 각별한 위치에 있다.

14세기 중반에 일어난 화재를 비롯하여 8번 대화재의 피해를 입어 소실과 재건을 반복했다. 메이지시대의 폐불훼석 때 사찰 땅이 메이지 정부에 많이 수용되어 버리고, 현재 사찰 경내지는 원래의 10분의 1정도가 되었다. 현재 경내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메이지시대에 재건된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창건 당시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무소국사가 설계한 정원이다. 무소국사는 많은 제자를 키우고 무로마치 시대에 임제종을 발전시킨 뛰어난 스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원을 설계한 분이다. 연못 소겐치(曹源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덴류지 정원이 일본 정원문화에 큰 영향을 준 중세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정원이다. 또 일본의 사적 · 특별명승 제1호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원이다. 크고 작은 돌이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 정원이 약동감이 있으면서도 섬세한 풍취가 있어 시원하게 보인다.

무소국사는 이 아름다운 정원을 통해서 선(禪)의 마음을 표현했다. 무소국사가 아시카가 장군의 동생인 다다요시의 물음에 대해 대답한 것을 저술한 〈몽중문답집(夢中問答集)〉이라는 법어(法語)가 있는데 여기에 무소국사의 정원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다.

“산수(山水)에는 득실(得失)이 없다. 득실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무소국사의 유명한 말이다. 정원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정원 자체에는 이해득실(利害得失)이 없다. 그것은 정원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진심으로 정원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저택을 자랑하기 위해 정원을 꾸미는 사람,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정원을 만드는 사람. 그런 류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산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이해할 수도 없다. 현대인들에게도 통하는 귀중한 말이 아닌가.

방장, 정원을 관람할 때는 고리(庫裏)에서 입장료를 지불한다. 이 티켓으로 대방장(大方丈), 소방장(小方丈=書院), 다보전(多寶殿)에 들어갈 수 있고, 정원도 관람할 수 있다. 고리 옆에 있는 매표소에서는 정원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한다. 가능하다면 방장에 올라가서 정원을 구경하는 것을 권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는 정원만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할 만큼 정원은 한번쯤 볼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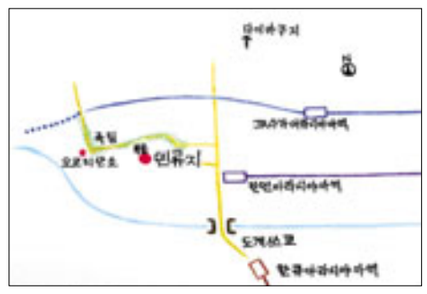
소겐치에서 북쪽방향으로 걸어가면 고다이고 천황상을 안치한 다보전이 있다. 벚꽃으로 유명한 덴류지에선 특히 다보전 주변에 피는 벚꽃이 예쁘다. 다보전 서쪽에 있는 ‘망경(望京)의 언덕’에 올라가면 덴류지 벚꽃의 아름다움을 다른 각도에서 즐길 수 있다. 다보전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백화원(百花苑)이다. 여기서 피는 꽃이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예쁘다. 한국 분들에게 익숙한 개나리나 진달래도 있다. 백화원에서 꽃이름을 손으로 직접 써서 표시하고 있는데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도 적혀있어 사찰 관계자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그리고 봄과 가을 특별공개 기간에는 대방장 앞에 있는 법당에 들어갈 수 있다. 입장료는 법당에서 지불한다. 법당에는 본존 석가여래상, 무소국사상 등이 안치되어 있는데, 천장에 그려진 운룡도(雲龍圖)도 관람할 수 있다. 이 운룡도는 현대 일본화 거장인 가야마마타조(加山又造, 1927-2004)화백에 의하여 1997년에 그려진 것이다. 운룡도는 일전에 소개한 도후쿠지, 난젠지, 쇼코쿠지(相國寺)등 선종사찰 법당 천장에도 그려져 있다. 수신(水神)으로서의 용이 법당 천장에 그려진 이유는 용이 불법의 은혜를 법우(法雨)로 내리고 또 화마를 쫓아내고, 사찰가람의 화재를 예방한다는 설명이 있다. 사찰마다 운룡도 공개기간이나 공개방법이 다르지만 운룡도를 보러 교토 선종사찰을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덴류지 주변볼거리

일본 대표적인 경승지인 사가노 · 아라시야마는 볼거리도 많고 범위도 넓어 짧은 시간에 다 돌아다닐 수는 없다. 한나절 정도라면 덴류지를 중심으로 주변 볼거리를 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 아라시야마의 상징으로 사진이 자주 나오는 도게쓰쿄(渡月橋)와 죽림이 덴류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덴류지 경내의 백화원 쪽에 있는 북문(北門)으로 출입할 수 있다. 북문을 나가면 바로 죽림이다. 죽림을 가기 위해 서쪽으로 올라가면 오코치산소(大河內山莊)라는 정원이 있다. 원래 배우 별장이었던 오코치산소는 조망도 좋고 말차와 일본과자를 맛볼 수 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만산에 피는 벚꽃이나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사가노 · 아라시야마에는 사찰도 많은데 각자 개성이 있는 매력적인 사찰이다. 그 중에서 덴류지 외에 하나만 고른다면 나는 다이카쿠지(大賞寺)를 추천한다. 원래 사가 천황의 이궁이었던 다이카쿠지는 대하사극이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덴류지에서 좀 멀지만 우아한 건물을 구경할 수 있어 가볼만하다.



사가노 · 아라시야마에는 전차로는 JR, 한큐, 노면전차로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가능하다. 자전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답사할 수 있다.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입처(立處)

우리는 모두 기막힌 시간에 서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밝힐 수 없는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한 줌 햇살과 천 년 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불보살 앞에 선다. 어떻게 왔을까. 왜 왔을까.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길을 알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서있는 곳마다 기막힌 시간이 흐르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⑱ 지옥서 고통받는 데바닷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참회하면

지옥으로 떨어진 데바닷다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기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도 보았지요.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불이 솟더니 데바닷다를 삼켜버리던걸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거야.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데바닷다가 저지른 악업을 종일 걸려도 다 셀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데바닷다가 저지른 것은 오역죄(五逆罪)였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헐뜯고, 교단과 교도들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었던 것입니다. 아난존자가 데바닷다를 가엾게 여기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데바닷다가 얼마 동안이나, 지옥에 있겠습니까?"

"1대겁 동안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 자옥이 끝나면 아귀, 축생에 떨어질 것이다."

대겁은 무한의 시간입니다. 가로세로 높이 120리의 입체 안에 가득 놓인 겨자씨를 3년에 한번 씩 집어내어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니까요. 부처님의 말씀에 아난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데바닷다가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러다가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 잘못을 뉘우치고 선업을 쌓아 간다면 수억 겁 뒤에는 사왕천에 태어날 수 있다. 벽지불이 될 수도 있지. 아무리 대죄를 지었더라도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이때에 아난 옆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신통제일 목건련이 나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비지옥에 가서 데바닷다를 만나 위로하고,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비지옥 문지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

"저는 신통력으로 64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옥에 가서도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부처님 허락을 받은 목건련은, 팔 한 번 굽혔다 펴는 시간에 지옥에 이르렀습니다. 아비지옥 지옥문에는, 지옥을 지키는 두 야차귀신이 긴 창을 짚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목건련의 말을 야차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반역자 데바닷다를 찾는다구요? 데바닷다는 삼생을 통해 나쁜 짓만 하던 죄인입니다."

목건련은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데바닷다 죄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비지옥,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목건련은 아비지옥 허공을 날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림 · 강병호

"데바닷다는 어디 있는가? 부처님 심부름으로 목건련이 왔다!"

데바닷다가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부처님이라니? 부처님 심부름으로 목건련이 왔다고?'

그러나 데바닷다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쇠바퀴가 몸을 갈아 부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야 아야!"

그러다가 뜨거운 쇠바퀴가 멈추었습니다. 몸뚱이가 이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죄인 데바닷다가 허공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작은 모기 소리였습니다.

허공을 날던 목건련이 금방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목건련은 데바닷다의 형틀 앞으로 날아내렸습니다.

"고생이 많소."

목건련의 인사에 데바닷다는 피투성이의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천하제일이라고 부처님 앞에서 날뛰던 지난날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법우님 형편을 알아보러 여기까지 왔소. 부처님도, 아란도 우리 도반이 모두 법우님 걱정을 하고 있지요. 우선 여기서 어떤 고생을 하는가를 알았으면 합니다."

데바닷다가 말했습니다. "뜨거운 쇠바퀴가 내 몸을 갈아서 조각을 내지요. 그러다가 살아나면, 쇠절구로 내 몸을 찧어서 부수지요. 그러다가 살아나면 검은 코끼리가 내 몸을 밟아서 부숴 버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 곧 불산으로 가서 뜨거운 불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고통은 표현이 어렵지요."

"부처님이 아주 희망적인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라도 법우님이 선업을 쌓으면 1대겁 뒤에는 아비지옥을 벗어날 것이며, 아귀와 축생을 거쳐서 사왕천에 태어날 거라 하셨어요. 선업을 계속 쌓으면 벽지불이 될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건 자기가 하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지옥에서 듣는 기쁜 소식에 데바닷다가 부서진 몸을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목건련이 말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비지옥 1대겁을 견디고, 아귀 축생을 견디고, 나는 벽지불에 이를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때에 만납시다."

데바닷다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춤을 추려고 했습니다.

〈법원주림22권 입도편〉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희담석 지키미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현무암)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8염주 + 지키미 20,8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파격 할인
~~100,000원~~ → 45,000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